

7 사할랑 자료

인권 자료실
등록일
인권정보자료실
AY.a.7

|자료집|

인권정보자료실

군에 의한  
**민주화운동 탄압 실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윤석양후원사업회 (준비위)  
 강제징집 철폐를 위한 대책위 (준비위)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 조직』비상대책위원회  
 청주대 『자주대오』대책위원회

인권정보자료실  
AY.a.7



자료집

拓 扶

군에 의한  
민주화운동 탄압 실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윤석양후원사업회(준비위)  
강제징집 철폐를 위한 대책위(준비위)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 조직』 비상대책위원회  
청주대 『자주대오』 대책위원회



# 차 례

## I. 6공화국의 군에 의한 민주화운동 탄압 구도

## II. 6공화국의 군에 의한 민주화운동 탄압 실태

### 1. 합법을 가장한 강제징집의 실상과 유형

### 2. 사병에 대한 사찰, 녹화사업, 의문사

#### 1) 윤석양 이병

신상

사건일지

수기 「나에겐 아직 갓아야 할 빛이 있다」 中

신문자료

#### 2) 남현진 열사

신상

사건일지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 3) 최홍기 이병

신상

사건일지

양심선언문

신문자료

### 3. 조직사건의 조작

#### 1) 혁명적 노동자 계급 투쟁 동맹(혁노맹)

혁노맹의 실체와 중앙 군사위원회의 조작

구속자 인적사항

#### 2)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 서울대

사건 경과

구속자 인적사항

사건 개요와 조작의 근거

기무사의 학생운동 탄압 신전술

총학생회 성명서

#### 3) 자주대오 : 청주대

사건 경과

구속자 인적사항

사건 개요

조작의 근거

충북지역 4단체 성명서·기자 회견문

신문자료

#### 4.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구속사건

사건경과

구속자 인적사항

언론보도 내용요약

공대위 기본입장과 대응 성명서

임시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총리답변 분석

기무사령관 면담요청서

기무사 구속자 접견 보고

신문자료

#### 5. 대국민 사찰

## III. 군민주화를 촉구하며

## IV. 첨부자료: "강건너 불인가 발등의 불인가?"-수방사 자료



## 1. 공화국의 군에 의한 민주화 운동 탄압 구도

한나라의 군대는 외세의 침략세력에 맞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내적으로는 주민 대중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보위하는 것을 그 본연의 임무로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가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채 외세의 용병으로서 같은 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내적으로는 독재정권의 폭압적 물리력으로 기능하여 국민들의 제반 민주화 요구를 총칼로 짓밟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군대는 결코 국민의 군대라고 할 수 없다.

한국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한국군은 그 출범초기부터 특정정치집단의 정권유지를 위한 폭력적 물리력으로 기능하여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6.25 전쟁이후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현대적인 최신식 무기와 조직원리로 무장되고 남북분단의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 정치 주체로 등장한 한국군은 대내적 사회질서 유지 반체제적 억압기능을 강화하게 되었고, 정치적 위기국면에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근거로 집단적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극한적인 폭력을 사용하여 군부정치를 최종적으로 지켜주는 거대한 군사관료 기구로 성장하여왔다. 이 속에서 정치군부는 정권의 위기시 군의 정치개입을 하나의 위협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을 봉쇄하는 데 군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 운동의 일정정도의 성과로 인하여 군의 집단적이고 직접적인 정치 개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정치군부의 군을 악용한 민주화 운동의 탄압의 내용도 합법적 탈을 쓰고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군부의 민간부분에 대한 항시적 노골적 개입의 어려움은 국가안전 기획부 및 경찰 공안 기구 등에 의해 보완되기도 하지만 이와 궤를 같이하여 군사제도 등을 적절히 보완 악용함으로써 군부의 직간접적인 개입과 군에 의한 민주화 운동 탄압이 과거에 비해 더욱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1. 군사조직의 합법적(?), 변칙적 변형을 통한 민주화 운동 탄압

#### 전투경찰, 준군사조직의 항시적 민주화운동 탄압

전투경찰은 경찰이라는 합법적 허울속에 군의 일부 병력을 빼돌려 만든 (준)군사조직으로서 항시적으로 민주화 운동탄압에 동원되고 있다. 혹자에 의하면 '군이 동원되는 것보다 전경이 시위진압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라며 전경의 불법적 시위진압 행위를 일정 미화하고 정당화시키고 있지만 이는 전경이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적 신분임을 고려할 때 위수령, 계엄령 등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아닌 때에도 정치군부의 안정적 집권과 민주화 운동 탄압을 위하여 항시적으로 군의 병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준군사조직인 전투

경찰이 평시에도 백주대낮에 서울의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합법을 가장한 준 계엄적 상황에서 군부가 철권통치를 휘두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방위병들로 구성된 충정사단과 특수기동대 등에서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시위진압 훈련, 소위 충정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이 극단적 정치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을 최종적으로 말살시키기 위해 동원된다면 이는 실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기무사의 대국민 사찰과 조직사건 조직

군대내에서 일정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군기무사령부는 계엄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대국민 사찰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무사는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은 물론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감시를 함으로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치군부에 대한 비판세력의 활동을 봉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기무사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업무협조 등의 명목으로 간섭하여 군부정권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되기 시작한 서울대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사건,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상지대 '민주주의 학생 연맹사건', 그리고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소장 대학교수들과 서울대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 사회과학 연구소' 사건, 안동대 '반미애국학생회' 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군기무사는 이들 사건에 깊게 개입하면서 이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많은 군인들을 구속하고 있다. 이들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국군 기무사가 군대외의 제반 사회영역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수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공연히 각종 사회운동 단체들에 대한 불법적인 대국민 사찰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불법적 대국민 사찰은 계엄 등의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활용하여 군과 관련한 각종 조직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군다나 기무사는 군 입대자들의 입대전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반 사회운동 단체들의 각종정보를 수집하고(한겨레 신문 90, 10, 10 자 참조) 더 나아가 입대전의 활동을 문제삼아 수많은 군인들을 구속, 수사함으로써 제반 사회운동 단체들을 사찰 감시하고 또한 수사할 수 있는 합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들의 입대전 활동에 대한 기무사의 무리한 수사는 대부분의 사건이 조작되고 과대 포장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서울 사회과학 연구소' 사건의 경우 방위병 이창휘씨와 홍성태씨는 제대를 2일, 3일 남겨두고 구속되었는데 이는 군의 신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대전의 활동을 문제삼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기무사의 수사체계가 부당함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폐쇄된 군대라는 사회속에서 고립될 수 밖에 없는 군인들에 대한 가혹한 수사를 바탕으로 하여 제반 사회운동 단체들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잊지도 않은 조직(!)들



을 조작해 낸다면 이는 실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2. 병역제도(군사제도)를 악용한 민주화운동탄압과 애국적 병사들에 대한 정치보복적 탄압(녹화사업과 프락치 공작)

획일적인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통해 강요되고 있는, 시대상황에도 훨씬 뒤떨어져 있는 안보이데올로기 교육과 군사적 긴장고조는 정권의 논리를 일반적으로 사회에 유포시키고 있으며 이속에서 정치군부는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병역의 의무, '의무징집' 제도를 악용한 6공식 강제징집과 이들에 대한 군대내에서의 정치보복적 탄압이다.

국방부에서는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이 84년도부터 중단되었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으나 이러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그 이름만 공식적(?)으로 사라졌을 뿐 합법을 가장하여 더욱 악랄하게,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최근에 표출되기 시작한 군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속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기무사의 대국민 사찰, 강제징집=>사병들에 대한 기무사의 기초조사 감시통제, 녹화사업, 프락치 강요=>의문사, 군과 관련한 각종 조직사건(의 조작), 수많은 녹색인간(프락치)의 창출"이라는 일련의 탄압 메카니즘 속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알게 모르게 기무사의 정치공작 대상이 되고 있는 병사들은 폐쇄된 군대라는 사회가 또 하나의 감옥으로 위치지워지며 이들은 이속에서 자신들의 인권, 젊음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저당잡힐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국군 기무사는 날로 성장하여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층민중세력과 민주화 운동세력을 탄압하고자 광범위한 대국민 사찰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국민 사찰 속에서 기무사는 선진적 청년학생, 노동자들 중 입대 예정자들을 분리, 구체적으로 신상을 파악한 후 합법을 빙자한 6공식 강제징집을 통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정부문의 무력화를 꾀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군대에서의 정치보복적 탄압, 정치공작을 통해 군과 관련한 각종 조직사건들을 표출해 냄으로서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 운동세력의 궤멸적 탄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공화국과는 달리 6공화국에서의 국군 기무사에 의한 조직 사건의 발표는 프락치 강요, 녹화사업 등 6공화국의 군인들에 대한 정치공작이 개개인에 대한 정치보복적 탄압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제반 사회운동세력들에 대한 조직적 탄압으로 진일보하고 있음을 입증시켜 주고 있다.

참고로 말하면 윤석양 이병에 대한 보안사(현 기무사)의 프락치 강요, 지난 2월의 남현진 이병의 의문사, 그리고 지난 4월 15일 최흥기 이병의 녹화사업 폭로, 양심선언 등에서도 밝혀졌듯이 국군 기무사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입대한 병사들에 대하여 신병훈련 직후나 자대 배치 후 광범위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내용은 주로 같이 활동했던 동료들의 이름과 활동내용 등이다. 이러한 조

사를 거부할 경우 최이병처럼 혹독한 정치보복적 탄압을 받게되며 또는 남이병의 경우처럼 의문의 죽음으로 우리의 부모형제 곁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 또한 조사에 일정 협조할 경우 윤이병처럼 보안사(기무사)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다. 설사 일반 부대에 배치되어 무난히 군대 생활을 한다손 치더라도 제대할 때까지 기무사의 감시와 사찰의 눈초리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곧바로 사법처리 되고 있는 병사들이다. 기무사에 의한 병사들의 사법처리는 대부분의 경우 군 내외의 조직사건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6공화국의 군을 악용한 민주화 운동 탄압의 구도들을 간단히 조명해 보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건별로 제시되는 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 II. 6공화국의 군에 의한 민주화운동 탄압 실태

### 1. 합법을 가장한 강제징집의 실상과 유형

#### 1) 들어가며

우리는 5공화국 시절 학생운동에 대한 무차별 탄압방식으로 자행되어진 '강제 징집'으로 인하여 서울대 한희철 학우 등 6명이 죽어갔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강제징집되었을 경우 이른바 '녹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친구들의 동태를 감시하도록하는 프락치공작과 자신의 신념에 대해 무조건 자아비판하도록 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통해 인권을 유린하고 민족 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을 하여왔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5공과 근본적으로 뿌리를 같이하는 6공에서는 합법의 탈을 쓴 채 '강제징집'이 공공연히 되살아날 뿐 아니라 91년 벽두부터 벌써 남현진(외대87), 송중호(서울대87), 이의창(전주 전문대) 군 등 3명의 청년학생들이 의문의 주검으로 우리 앞에 돌아왔기 때문이다.

대낮에 시위학생을 쇠파이프로 패죽이고, 그의 아버지마저 법정소란 행위로 구속시키며 노동자들은 독가스로 죽이는 이러한 자들이 장악한 군대,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의문의 죽음들, 이것은 필연적 결과이지 절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군내 의문사', '녹화사업-프락차 공작', '조직사건 조작' 등은 '강제 징집' 문제와 결코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고, 이 문제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제 모순속에서의 군의 지위와 역할, 우리 군의 예속적이고 반통일적인, 그리고 비민주적인 체계와 질서 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모두가 바르게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글에서는 청년학생들의 헌신적인 투쟁, 노동운동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각계 각층 대중운동의 활성화 속에서 입지조건이 축소되어가던 현 정권이 정권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군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병역의무를 빙자하여 합법의 탈을 쓴 강제징집 책동을 자행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자체를 탄압하고 있어 그 실태와 심각성을 지적하는 데 중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병역법 시행령 변화과정과 정치적 관계

89년 3월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보더라도 합법을 가장한 6공식 강제 징집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다. 84년 5월 이전에는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군징집에서 면제되었던 것이 여러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89년 3월에는 실형 2년 미만자는 모두 징집되는 것으로 개악되었다. <표1 참조>

<표 1. 병역법 시행령 103조의 변화과정>

구분 시기	개정된 내용
84년 5월 이전	실형 6년 이상 선고 받은 자 면제
84년 5월 이후	집시법위반자의 경우에만 실형 3년 이하는 모두 징집
88년 8월 1일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미만자는 모두 징집
89년 3월 --현재	실형 2년 미만자는 모두 징집

그러면 3차에 걸쳐 개정되어진 병역법 시행령은 어떠한 정치적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합법을 빙자한 6공식 강제징집'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전두환 정권은 84년 유화국면 조치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일정한 고양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일련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학원안정법'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이 바로 그것이다. 즉, 전두환 정권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전에는 실형 6년 이상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징집을 면제하던 것을 이후부터는 집시법등의 시국사범의 경우에만 실형 3년 이하는 모두 징집되는 것으로 개악한 것이다. 당시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실형 3년 이상을 선고받기는 현실적으로 드문 경우였음을 상기할 때 이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탄압 술책에 다름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들이 느끼기에 훨씬 부드럽게(?) 개정된 88년 8월 1일의 개정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이는 무엇보다도 국민대중의 광범한 투쟁에 의해 민족민주운동진영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던 당시의 정치적 세력관계 속에서 파



악되어져야 한다.

아방과 타방의 힘의 관계 속에서 밀리게 된 미-노 일당은 87년 6월 항쟁이후 세차례에 걸쳐 사면복권과 수배해제, 가석방조치와 더불어 84년 5월 개악한 병역법시행령을 88년 8월 1일 다시 개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당시 시국관련 징집대상자 483명이 징집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강제징집대상자들의 투쟁과 노태우 정권의 집권 초반 유화정책이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9년 상반기 노태우 정권은 안정적인 집권통치를 위해 민족민주운동진영에 대한 총체적인 탄압을 자행하며 온 국민을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이른바 '공안정국'을 획책하게 된다. 이에 이제까지의 구속이나, 수배, 해고 등의 일회적인 탄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치보복적 제도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그것의 하나가 바로 89년 3월 25일자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이었던 것이다.

### 3) 합법을 빙자한 6공식 강제징집의 각 유형별 고찰

그러면 합법을 가장한 6공식 강제징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시국관련 구속 석방자의 경우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앞장서서 투쟁해온 시국관련 구속 석방자들을 군에 묶어 두려는 의도 하에 89년 3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형도 여기에 맞추어 선고하고 출소 후 바로 징집하는 합법의 탈을 쓴 강제징집이 잇따르고 있다.

#### 왜 합법을 빙자한 강제 징집인가?

그것은 첫째로, '일반사범'과 '시국사범'을 차별해서 법 조항을 편파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역법 시행령이 89년 3월 실행 2년 미만자는 모두 징집되는 것으로 개정된 후에 일반사범의 경우에는 군 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병무청 내규에 의해서 정해진 1년에서 2년 미만의 형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군 징집에서 면제되는데 시국사범은 1년 6개월을 복역하다 나와도 군징집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시국관련 사범에게는 '의도적'으로 2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고 출소 전에 영장을 발부하여 출소 후 바로 입대하게끔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1년 이상의 실형을 살고 나왔을 때 곧바로 군대에 가게 된다면 무려 5년 안팎의 기간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될 뿐 아니라 학업 수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는 엄청난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두번째로는 91년 1월 30일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구 국방부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 병역차원의 군의 충원 수요보다 많아 연간 5만여명이 입대하지 못하고 병역 면제 처분을 받거나 보충역 소집이 면제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병역 차원이 남아돌아 '미입대자 건설현장 투입' 등을 추진하고, 우선

입영원을 제출한 자들이 몇개월 심지어는 해를 넘겨 기다려야 입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유독 시국관련 구속자들에게만 출소 직전 영장이 발부되고 출소 후 곧바로 징집되고 있는 것은 합법의 탈을 쓴 강제 징집에 다름아니다.

#### ② 방위산업체 해고 노동자를 포함한

##### 특례 보충역과 제반 후보생(ROTC, RNTC)의 경우

노동운동의 선도적 투쟁 주체들로 떠오르고 있는 대기업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게 활동의 제약을 가하기 위해 '방위산업체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강제 징집' 책동을 전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위산업체 특례 해고 노동자의 경우, 여기서 특례 보충역의 경우 기간 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군 복무를 수행한 것과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데 이러한 군복무의 성격이 강한 산업체 근무로 인하여 기업주들은 이들에게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강요하여 노동자들의 많은 반발을 받아 왔고, 기업주들의 평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조 활동에 열심인 노동자의 경우 낮은 근무평점을 매기거나 혹은 해고를 함으로써 이들이 4년 11개월을 근무해 왔다 할지라도 30개월의 군복무를 처음부터 다시 수행하게끔 내몰고 있으며 심지어는 해고되기 전에 징집영장을 발부받는 사례까지 존재해 왔다. 이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노동자에 대한 강제 징집에 다름아닌 것이다.

민주적 ROTC의 경우에도, 특히 한국 해양대에서는 학원 민주화 및 학군단 비리 척결을 주장하는 ROTC들을 병역법 내의 '학생 군사실시령' 병역법 83조에 있는 '무관후보생 제적자는 바로 입영된다.'라는 대표적 악조항에 의해 학군단에서 제적시킴으로써 자기 의사와는 관계 없이 조기 징집하여 정상적 학업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탄압하며 이 경우 ROTC복무 기간이 군복무기간에 가산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끝으로 앞에서도 간략하게 지적했듯이 과거 5공 시절 자행되었던 '강제징집', '녹화사업'만행과 합법의 탈을 쓴 6공식 강제 징집을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자.

<표 2 참조>

분류	5공화국	6공화국
1) 강제징집 대상자	소위 운동권의 '문제학생'	시국관련 청년학생 구속자 민주적 ROTC 특례 해고 노동자
2) 예비단계	지도휴학	민주적 ROTC: 학군단 제적 학생 : 실행 2년 미만의 구속 특례노동자: 구속 및 해고



3)입영일 절차	경찰서에서 연행된 직후 신체검사도 없이 곧바로 강제징집	학생:만기출소직전 영장발부 직후에 곧바로 징집 특례노동자:해고와 동시에 혹은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에 징집 민주적 ROTC:제적과 동시에 현역사병으로 징집
4)입영 후 군내	녹화사업 프락치 강요	과거전력 수사 및 군대내 조직사건 조작(혁노맹, 전민학련, 자민통) 프락치 공작(윤석양 이병)
5)군대내 의문사	강집과 관련 한희철 열사 등 6인	남현진, 송중호 열사 등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합법의 탈을 쓴 6공식 강제 징집이 갖는 교묘한 특징은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부당한 강제징집을 정권의 논리에 맞게 병역법 개정을 통해 마치 적법한 것인양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조합법,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대한 법률을 통하여 구속함으로써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형이 종료할 무렵이면 또 다시 개악하고 병역법 시행령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에로의 복귀를 차단하고 장기간 동안의 격리를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 2. 사병에 대한 사찰, 녹화사업, 의문사

### 1) 윤석양 이병

#### ■신상

출생 : 1966. 7. 10. 서울출생  
학교 : 한국 외국어대 노어과 85 (4학년 제적)  
활동 : 88 . 9 '혁명의 불꽃' 그룹에서 활동  
89 . 3 민학투련 중앙위원  
89 . 8 혁노맹 선동국장  
90 . 3 혁노맹 탈퇴

#### ■사건 일지

1990 . 5 . 1 3사단 시병 훈련소에 입대  
1990 . 6 . 19 훈련소 퇴소  
1990 . 6 . 20 육군 제3사단 22연대 8중대 3소대로 자대배치  
(군번 23455925)  
1990 . 7 . 3 보안사 연행 후 불법감금 상태에서 혁노맹 조작강요, 프락치 강요 및 협박과 회유를 받음  
1990 . 7 . 10 셋째누님(윤호순)등이 3사단에 찾아가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전방철책 근무중이므로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지휘관의 답변을 들음  
1990 . 7 . 19 박태호씨 검거에 강제동원  
1990 . 9 . 23 새벽 02:40 보안사 민간인 사찰자료를 가지고 탈영  
1990 . 10 . 4 KNCC 인권위에서 양심선언, 수배중

#### ■수기 "나에겐 아직 감아야 할 빛이 있다." 中

흐린 날이었다. 오전에는 약간씩 비가 뿌려지기도 했다. 그날이 7월 3일. 도로보수 작업차 소대원 7명과 떼를 입히고 몸통만한 바위덩어리도 날라다 파묻고 하는데 폭우로 패이고 꺼진 도로를 따라 지프 한 대가 올라와 멈춰서더니 소령계급장을 단 연대 인사과장이 내렸다. 그는 소대원을 계급순으로 정렬시킨 후 관등성명을 대라고 말했다. 소대 막내였던 내 관등성명이 마지막으로 끝나자,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띄며 내게 다가왔다. 그는 "오, 자네가 윤석양인가? 제출한 성장이력서



를 보니 글씨를 곧잘 쓰더군. 학력도 고학력이고. 연대본부 행정병으로 진출하려 하는데-----"라며 지프에 동승을 제의했다.

### 보안사 연행

어찌어찌하다가 혁노맹에서 탈퇴한 나는 2년간의 건조하고 단조로운 비합법 조직 생활에 탈진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한다는 명분하에 90년 5월 1일 쫓기듯 입대했다.

6월 20일 자대배치 후, 상습적으로 구타를 일삼는 소대 고참에게 항명도 하고 당돌하게 「역사의 어둠 속 피되어 흐르던 날---」로 시작되는 5월의 노래도 부르면서 아주 내놓고 자그마한 「실천」도 해보았다. 시사적인 합법 출판물들을 회람시켜 소대 분위기를 쇄신하는 정도로, 오히려 이렇게 공개적인 활동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으면 자고 싶다」는 군대식 사고방식에 벌써 물든 탓일까. 나는 한결 편할지도 모를 행정병보다는 나름의 생각도 있고 해서 그냥 자대에 머물고 싶다는 것을 인사과장에게 말할 작정이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지프를 타고 내가 간 곳은 연대본부가 아니라 대공상담소라고 쓰여진 예하 보안부대였다.

쿵쿵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나는 공명이 잘 되는 복도를 따라 쿵쿵한 어느 지하 심문실로 이끌려 들어갔다. 뒤따라 상병 계급장을 단 감시병이 들어왔다. 그의 지시하에 곧 수첩 담배 라이터 휴지 등 소지품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군번표혁대도 풀었다. 군화대신 슬리퍼를 신어야 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리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나는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다. 시선만은 이리저리 굴리며 조금이라도 낮선 분위기를 덜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불쑥 날카로운 인상에 날래모이는 두 명이 들어왔다. 뒤에 이름을 알게 된 그들은 이승섭계장과 김호수 반장이었다.

“종규, 기다렸다.”

종규? 그것은 89년 8월 혁노맹 재건대회에서의 내 가명이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픽-”하고 헛웃음을 지었다. 왜 그랬을까. 허사키한 목소리의 김반장은 두툼한 서류봉투를 소리나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것이 종규, 너에 관한 자료다. 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부인할 생각은 마라. 여기가 어딘지 아나?”

“간첩잡는 것 아닙니까?”

“맞아, 여기는 경찰이 아냐, 간첩잡는 보안대야. 경찰과는 달라. 우리는 본부

에서 왔다.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다. 너에게 시간 뺏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먼저 너의 성의를 보겠다. 우리가 왜 하필 너를, 80만 군인중에서 하필이면 너를 뽑아왔는지 알고 있지?”

그는 마지막 말을 세 번 반복했다. 그리고 잠시 뚫을 들었다. ....

다음날 나는 용산 서빙고동의 보안사본실로 옮겨졌다. 군복대신 부대에서 지급한 사복으로 갈아 입고서였다.

“종규, 너 우리와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제대시켜 줄 테니까”. “어떻게 제대시켜줍니까?”라는 나의 말에 “보안사가 그정도 힘도 없겠나!”라며 웃었다.

“한 6개월 현장에 들어가 감각을 익히고 본격적으로 같이 일하는 거야. 너 정도면 6급 채용이야. 우리가 말 잘해서 월급도 세계 좋게”

서울로 올라오는 이계장의 스텔라에서 김반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벌써 세번째였다. 아침에 한 번, 올라오기 직전에 또 한 번. 상투적으로 한 번씩 던져보는 것이라고 느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징그럽다는 생각과 함께 은근한 협박에 움츠러들기도 했다. 무어라 답변할 말이 없어서 나는 그냥 우물쭈물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나는 서빙고에 도착하였다. 제일교포에 대한 악랄한 간첩조작의 산실 소빙고, 『빙고호텔』에 온 것이다. 도착 즉시, 바로 내무반으로 들어갔다.

자대에서 예하 보안부대로 연행될 때에도 그랬고 이것 서빙고에 올 때에도 역시 안대와 수갑을 차지 않았는데, 또 피의자답지 않게 내무반 생활을 하게하는 것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

“어허..... 벌써부터 왜 이래! 선동국장까지 지냈으면서 탈퇴를 해? 탈퇴를 했을 수도 있겠지. 위장으로. 너희들의 그런 위장전술쯤 우리가 모를 줄 아나? 그렇게 생각하나? 말해. 다 알고 있어. 「M M」할려고 왔지!”

불쑥 튀어나온 「M M」이라는 말에 그게 무슨 말이나고 되물었지만 그것이 또한 이승섭계장 김반장의 노기를 불렀다. 이계장은 안되겠다는 듯 대기하고 있던 일직 하사에게 국광이자루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나를 일어서게 한 후 구석진 벽으로 밀어댔다. 차마 국광이자루로는 어찌지 못하고 “뭐 M M이 뭐냐고?”하며 쪼인트를 까고 몇 대 쥐어막았다. 자리에 앉은 후 생각해보니까 「Military Movement」의 약자 같았다.

잘못하다가 엄청난 일에 휩쓸릴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나는 “혁노맹 탈퇴했다, 운동 그만 뒀다, 그만두고 군대 온 거다” 등등 이것저것 말 되는 대로 살을 붙여서 설명했다. 내 말의 아귀가 맞아 떨어진 것일까. 질문이 바뀌었다.

“좋다. 그럼 군투입자 10명, 박철민(박대호씨), 이철수(노성철씨), 한승동(?) 등 애들 중앙위원의 소재지를 대라. 설마 이것까지 잡아떼지는 않겠지? 이것은 최소한의 성의표시야. 딱 요만큼만 대면 너는 구속 안시킨다. 그리고 자대로 복귀한다. 이것은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내가 약속한다.”

구속을 안시킨다는 말에 슬깃한 것도 사실이지만, 민학투련 투쟁위원장으로 수배



도 안 풀린 상태에서 입대했던 동료가 보안대로부터 조사만 몇 번 받고 특별한 문제없이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내가 구속이 된다는 것이 도리어 이해가 안가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최소한」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이승섭계장의 주문에 어이가 없었다.

### 회유와 협박

이승섭계장은 이른 아침부터 나를 호출하여 책상을 팡팡 두들기며 흥분했다. 어제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모양이었다. 헌이 소재지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넌 알아, 아니 반드시 알아야 해! 너하고 제일 친한 게 누구야? 헌이 아냐, 헌이! 그런데 그걸 몰라! 헌이하고 같이 탈퇴까지 했다면서!”

도리질만 계속하니, 이계장은 어제 새벽까지 줄곧 같이 있으면서 유일하게 한 마디도 하지 않은, 평범하고 착실한 샐러리맨 같은 인상의 수사관(이자가 바로 내 담당수사관이었던 이덕렬부장이다)에게 영장을 떼라며 소리를 지르고 곧장 나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부장은 손짓으로 나를 부르더니 심문실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어느 수사관과는 달리 조용조용 얘기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숨기느냐, 그렇게 남한산성에 가고 싶으냐, 남한산성에 가면 서지도 앉지도 못한다는 말 못들러 봤느냐, 사람 병신 다 된다,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아라, 이계장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계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누가 너희들 빵에 보내고 싶어하겠느냐, 이계장이 특별히 배려해 빵에 가야 하는데도 지금은 미국 유학가서 잘 사는 놈도 있다, 편지도 온다, 어떤 애는 ‘나는 운동에 속아왔다. TV 인터뷰라도 하게 해 달라’고 애걸하기도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냐, 네가 지금은 버티더라도 영장 떼고 본격적으로 수사하면 버틸 것 같으냐, 그렇게 체력에 자신이 있느냐, 너는 5분도 안간다, 결국 불건 다 불고, 몸은 병신되고, 남한산성에서 한 2년 썩게 되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냐, 그때 가면 간첩도 다 분다, 간첩도 부는데 네가 견딜 것 같으냐, 오죽하면 벽에 머리를 찌어서 자살까지 하겠느냐, 나도 너만한 동생이 있어서 그런다 등등, 회유인지, 설득인지, 협박인지 아리송한 이 나긋나긋한 공세에 나는 흔들려버렸다.

윤석양이병 양심선언 정당하다.

민주화운동 탄압하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수배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

## 2) 남현진 열사

### 신상

출생 : 1970년 2월 22일 경북 예천 출생

학교 : 한국 외국어 대학교 영어과 88학번

활동 : 88년 전대협 통일 선봉대 용성총련 한라선봉대장

89년 2학기 총학생회 사회부 차장

90년 겨울방학시 총학생회 건준위 기획부장

### 사건일지

가족대표 4인(아버님, 형님 등), 학생대표 3인(부총학생회장 등), 인의협 이운성 교수님, 민변 정미화 변호사, 그리고 학보사 기자 2인 등 공동 조사단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부대장병 및 지휘관과 수사관들과 면담 후 사체부검에 참관한 후 다음과 같은 사건일지를 작성하였다.

90. 11. 19 논산 제 2훈련소 입소

91. 1. 14 논산 훈련소 퇴소. 퇴소식 때 부모님과 면담시 활기차고 자신감을 보였다고 함. 한편 동기들에게 자신의 주특기가 08 즉 보안 정보를 주특기로 받았다고 함.

1. 15 훈련소 배출

1. 17 사단배치(제 1사단)

이후 10일동안 동기들과 분리된 채 어디선가 따로 조사(?)를 받았음. 이 기간동안 모종의 정치공작이 있었으리라 추정됨

1. 24 연대배치(11연대) 이때 주특기가 08에서 100으로 바뀌었고 동기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당히 불안해 하고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고 함. (10일 동안에 보안사의 프락치 강요를 거부하여 주특기가 변경된 것으로 추정)

1. 25 중대배치 후 소대배치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띄움(별첨)

1. 26 내무반장 모하사와 면담과정에서 「남북한 통일이 되었을 때 공동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남현진 열사는 「미제국주의」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갓 들어온 신병에게 이러한 정치성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그가 이전에 학생운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에 대한 남현진 열사의 대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군대라는 폭압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선적인 대답을 했다는 것은 사건에 모종의 정치적 탄압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1. 27 동료들과 축구시합이 있었다고 증대장 황병하대위가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무릎에 찰과상 및 멍든 흔적이 생겼다고 주장함.
1. 28 전방 적응훈련이 전중대에 실시되었고 남현진열사는 60km행군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증대장이 진술했음. 그러나 갓 들어온 신병을 증대장이 유심히 관찰했을 리 없다.
2. 2 새벽에 부대에 도착했다고 함.
2. 3 오전 10시경 종교 활동 시간에 교회에 다녔다고 함. 직후에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의무반에서 감기약을 타서 복용했다고 의무반원이 증언했다. 자살하기 몇 시간전 감기라는 이유로 약을 복용했다는 것은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다.  
11시경 쓰레기장 옆 10m 근처에서 빨래감시병인 민경식 일병이 목격했다고 함.  
11시 45분 쓰레기 청소담당 강태원상병이 청소 중 바로 옆에 있던 남현진열사를 발견하고 불렀다고 함. 그리고 야전상의가 불룩하여 무엇이나고 하니 썬두 3~5개와 쏘세지, 빵 등이 쏟아져 내렸다고 함. 그러나 실제현장에는 커다란 비닐봉지가 발견되었기에 뱃속에 넣고 왔는지 의문이 되며, 와르르 쏟아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청소 담당 상병의 "이것은 왜 샀느냐?"는 질문에 "소대장 전령인 국상완이병과 먹기 위해 샀다." 라고 대답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함. 그러나 그 지형은 뒷면의 그림(\*)처럼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곳이 아니며 신병이 PX 등을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느냐는 의혹과 철방을 두 번 넘어서 야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철망을 넘어 약 직경 150m 지점 으스스한 곳에서 빵과 음료수를 먹은 흔적이 발견되었음. 이는 바로 전날 부모님만의 현장검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일 오전에 발견되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사고지점 보다 빵을 먹었다는 곳이 철망에서 가까우므로 증대원들이 남현진열사를 찾았다면 시신보다 먼저 발견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한 가치 핀 담배(88)가 있었는데 이 들판은 야산에 있었으므로 이슬 등으로 필터가 눅눅하거나 습기가 있어야 하나 아주 뽕송해서 곧 피워도 될것 같았다.  
빵을 먹었다는 지점에서 약 20m지점에 목을 댔다고 하는 현장이 있었음. 직경 10cm 정도의 소나무에 8가닥 정도의 끈이 있었으며 길이는 1m 정도이며 라이타로 자른 흔적이 있음. 소나무는 땅에서 약 2m 정도이고 목을 댔을 경우 남현진학우가 팔을 뻗으면 소나무에 충분히 닿을 수 있음.  
처음 시체를 발견했을 당시가 14시 50분 경으로 자살시간은 14시 40분경으로 추정한다고 부대측이 주장함. 또한 목을 댔다는 끈이

2. 5 매듭이 하나 뿐이어서 울무를 맨 것은 아니며 소나무에 묶고 목을 놓았으리라 추정됨.  
현장검증과 부검.  
부검당시 인의협 이윤성교수와 군의관의 증언 : 목에 5~6줄의 끈으로 압박을 가한 흔적이 있고 이마 좌측 멍은 목을 댔을 당시 끈이 길지 않아 소나무에 닿았기 때문에 생겼으며 목에 있는 멍은 인공호흡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함. 무릎에 타박상 및 멍은 다른 부위보다 색이 푸른 빛을 띄고 있어 사건 당시보다 이전에 발생했으리라 함. 목올대 해부에서 직접적인 사인은 목을 댔기 때문이라고 의사가 규정함.  
25일 썼던 편지가 당일에 발견되어 가족에게 전달됨. 그 내용은 무엇인가 급박하게 쫓기고 있었으며 다급해 하고 불안해 한다는 것이 역력함. 그 이유는 "편지에 쓸 수 없으므로 유추해석해야한다." 고 함. 이 편지는 25일자로 되어 있으나 발송되지 않음. 부대측에서는 보안검열이 진행되던 중 28일 훈련관계로 발송이 지연되었다고 함.





###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은정씨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주일이 조금 덜 지났지.

논산에서 시원섭섭한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열차편으로 이곳까지 왔다. 설마 내가 이곳 어디라고 말을 못하지만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현실은 다가오고 말았다. 이왕 시작한 군 생활 어디있다고 편하고 어디 있다고 힘들고 그럴겠냐 내 마음 먹기 달린 것 아니겠냐 어떤 힘든 일도 견뎌야겠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인데도 교통도 불편하지 않은 모양이다. 운명이란게 내 스스로 개척을 해가고 내가 만들어 간다고 배우고 실천하려 하지만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해서 좀 걱정스럽다. 확신이 흔들린다는 불안감마저 든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너가 살고 있는 바깥 세상과는 다른 사회란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는 훈련소와 다른 실제 부대라는 생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깊게 넓게 상상하고 이해해야만 내가 할려는 속 마음을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다.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겠지만 지면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할수가 없구나.

자대 배치 받은지 오늘이 하루째다. 정신이 어지러워서 하나도 생각이 안난다. 간단히 마무리하마. 시간이 없구나. 편지에다 아무말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뚫을 너가 유추해석 해야만 한다. 우리집에 전화해서 확인해라. 그리고 주소를 확인해라.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 하자. 만날 시간이 시간적 여유가 여기서는 별로 없다. 우리집에 꼭 전화해라.

일천 구백 구십일년 일월 이십오일

현진

편집자 주) 편지사본의 복사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옮겨 실습니다. 군 우편의 경우 보안검열이 엄격하여 한글을 제외한 모든 표기(문장부호, 숫자표기 등)가 금지되는데 위의 편지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남열사 편지에는 마침표가 없었음을 밝혀둡니다.

### 3) 최홍기 이병

#### 신상

- 출생 1969. 2. 8
- 학교 군산대 제어계측공학과 88학번
- 활동 89. 5 평양축전 참가를 위한 공과대학생회 준비위원장
- 6 공학관 조기건립 및 실험실습 기자재 쟁취를 위한 투쟁위원장
- 7 농촌봉사활동 위원장
- 10 전교조 벽보작업 중 연행, 불구속 입건
- 12 자연과학동아리 「과학과 인간」 회장
- 90. 1 대천지역 전교조 후원회 참여
- 7 대천 경찰서 연행 전교조 후원활동 중단 강요
- 8 대천 경찰서 정보과 경관에 연행도중 도주하여 지역수배에 걸림

#### 사건일지

91년

- 1. 17 논산 제2 훈련소 입대(4박 5일 동안 대기)
- 1. 21 논산 제2 훈련소 23연대 6중대 투입. 6주간의 훈련을 받음
- 3. 8 오전 10시 퇴소식을 함(비가 몹시44도 왔었음)
- 오후 8시 각 부대 대기하는 곳의 명단을 부름
- 오후 10시 연무역에서 기차를 탐
- 3. 9 새벽 6시 의정부 용현동 306보충대 도착 눈이 많이 쌓여 있었음
- 저녁 8시 트럭을 타고 1시간 정도 이동
- 저녁 9시 트럭을 내리라고 하였으며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 나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감. 현판에는 보안부대라고 명시됨.
- 건물 내부에서 복도 끝에서 3번째 방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함. 방으로 들어서자 시계를 풀라고 하고 시간을 모르는 게 낫다고 하며 시계를 압수함
- 저녁 10시 문서철과 백지 몇장을 들고 키가 큰(180cm 정도) 사람이 들어옴.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을 내보내고 자리에 앉음. 문서철을 들썩거리며 심각한 표정을 지음. 이때 침묵이 흘렀으며 옆방에서 욕박지르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음. 한참후에 문서철을 접고 "사회에서는 잘도 피해 다녔지만 그러나 군대에서



는 어렵었다" 라고 협박 비슷하게 말을 함.

저녁 11시 슬라이드 상영을 함. 내용은 학생 시위내용, 노동자 파업 내용 등이었음, 상영 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 함. '느낌 없이 보았다' 고 하자 '대학생 정도 되는 놈이 그것도 모르느냐' 며 자존심을 건드림

12시경 백지 몇장과 필기구를 건네주며 '네가 바라는 사회와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를 백지로 쓰라고 함. '현정권은 안정적이고 미국은 우방이고 살기좋은 나라이다' 라고 썼음. 그러자 화를 벌컥 내면서 '나를 병신 취급하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느냐, 요즘 대학생들은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사느냐' 는 등 자존심 뿐만이 아닌 심리적 위협감을 줌

3. 10 1시경 '내가 몹시 피곤하니 쉬었다 하자' 며 눈썹 잠깐 붙이라고 하고 나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6시쯤 깨움

7시 학생운동시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기재할 것을 강요받음. '학생운동에 별다른 활동 없었다' 고 극구 부인하자 다시 화를 내면서 '내가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너는 양심도 없냐,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떠들어 대던 정부 비판을 날날하게 떠들어 봐라' 라고 함. 10여차례의 강요로 다시 글을 씀. 시종일관 같은 내용을 되풀이 함.

12시 밖에서 밥을 갖고 들어옴. 식사를 갖고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다알고 있으니 바른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 거다' 라고 함

1시 다시 조사가 시작됨. '학생운동 당시 활동내용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으라' 고 강요함. '모르는 일이다'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자 '너하고는 말이 안통한다. 너는 맞아야 한다'며 협박을 함. 협박도중에 옆방에서 계속 욕박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무척 많은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듦. 다시 쓸 것을 강요 받음. 이것을 10여 차례 계속함.

5시 다시 대기하라고 말하고 나감

5시 30분 다시 들어옴. '다 알고 있으니까 바른대로 얘기하면 편한 부대로 배치시켜 주겠다.'고 회유함. '알고 있으면서 뭘 더 알려고 하느냐, 편한 부대 필요 없다.'고 말하자 '너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밖으로 나감.

7시 다시 들어옴. 비디오 한 편을 감상하라면서 비디오 상영. 비디오 내용은 학생시위 노동자들의 파업이 주 내용이었으며 정권의 안정화와 그 정당성을 시사하는 내용이었음.

8시 30분 비디오 상영 소감문을 작성하라고 함. '감명 깊었다. 아주 잘 됐다.'라고 썼음. 아무런 말이 없었음.

8시 44분 압수했던 시계를 돌려줌. '수고했다. 너 같은 놈은 악질이다. 너같은 놈은 처음보았다. 군대(자대)가서 고생 좀 해봐라.' 라고 말하고 나가라고 함.

8시 45분 정문 앞에 트럭에 승차함.

9시 45분 의정부 용현동 306 보충대로 이동, 저녁식사를 함.

10시 45분 취침을 하라고 함.

3. 11

아침 10시 자대배치와 자대위치를 불러줌. (2군 지사 5163부대 805 독립중대, 군번 91-76002930) 306 보충대에서 4시까지 청소를 하면서 대기함.

오후 4시 2군수 사령부로 출발, 5시에 도착함.

오후 5시 간단한 신고식을 치른 뒤 충성통합 교육대로 이동함.

오후 6시 충성교육대에서 2박 3일 동안 대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쉬다가 자다 가라고 함

3. 13

오후 4시 충성통합 교육대에서 자대로 이동하기 위해 트럭에 승차함.

오후 5시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5163부대 대대에서 2박 3일 동안 신고하기 위해 대기함. 조교들이 5163부대는 6개의 독립중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함. (2박 3일 동안 부대 청소를 하면서 대기함)

3. 16

오후 4시 신고식을 5163부대장에게 치르고 805 독립중대로 이동함.

오후 6시 805 독립중대에 도착, 고참들이 들고 왔던 더블백(의류대)을 갖고 들어감.

6시 30분 저녁식사를 하라고 해서 밥을 먹음.

7시 30분 인사제와 간단한 면담을 함.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은 혼자 있으면 엉뚱한 생각이나 하게 되고, 빨갱이밖에 되지 않는다. 좀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한 것.

8시 30분 내무반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고참들이 말하고 편하게 있으라고 함.

9시 30분 일석점호를 취하고 일찍 자라고 함.

3. 17

아침 6시 기상을 해서 일조점호를 함. 일조점호 도중 고참들이 끌고 감대략 6명 정도가 건물 뒷편으로 데리고 가 구타를 30분간 실시함.

6시 30분 아침 청소를 실시함. 아침 청소에서 열외시키고 10명 정도가 나를 데리고 다시 건물 뒷편으로 끌고 감. 30분간 구타를 당



함.

7시 아침식사를 하러 식당을 올라 감. 아침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취사장 뒷편으로 끌고감. 30분간 구타를 당함.

8시 명령하달 시간임. 이 시간에 중대장은 '자신은 특공연대 소속으로 내가 원하는 군대의 뜻에 맞춰 사병들이 따라오기 바란다. 멍치면 어느 중대, 대대 못지 않는 진정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함.

8시 30분 하루의 일과가 시작됨. 모든 사병들이 특기에 맞춰 각 부서에서 담당 훈련을 하는 데 이상하게 열외를 시킴. 삼을 들고 따라 들어 오라고 함. 하수구 구덩이 평탄작업을 하라고 함. 악취와 물이 고여 썩어 냄새가 무척 심했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수구에 들어가 삼을 들고 평탄작업을 실시함.

9시 30분 10여명이 몰려 와 '사회 있을 때 네가 그렇게 잘나가던 학생 운동권이였다'며 추궁을 함. '아니다.'고 부인하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며 '말 잘하는 빨갱이, 한 마디 지껄여 봐라'고 함. '정말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하자 시궁창 오물을 발로 짓밟으며 군화를 들이 댐. '그 잘난 헛바닥, 내 군화 밑에서 굴러 보아라.'라고 함. '못하겠다.'라고 하자 구타 세례를 퍼 부음. 구타에 못 이겨 군화 밑바닥을 혀로 핥았음.

10시 30분 작업을 계속하고 몰려왔던 사람들은 잠. '요령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라고 함.

11시 30분 식사 집합하기 위해 모임. 또 다시 15명정도 몰려와서 끌고 감. 무릎을 꿇고 '제발 때리지 말라.'고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함. 그러자 주먹과 군화가 정신없이 날아 옴.

오후 1시 역시 오후 일과가 시작됨. 역시 열외였음. 삼을 갖다 주면서 마저 하던 일을 계속 하라고 함.

2시 10명이 또 다시 옴. 다시 구타를 시작함. 30분을 말그대로 개패듯이 맞았음. 그중 한명이 '왜 때렸는 줄 아느냐'고 함. '모르겠다'고 하자 '이유없이 때렸어. 새끼야'라고 함.

5시 일과를 마치고 오후 정돈과 청소를 실시함. 또 다시 10명이 끌고 감. '너의 청소는 오늘 내 군화를 청소하는 것이다.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가 개똥그릇을 핥듯이 헛바닥으로 핥아라'고 했음. 구타가 무서웠기 때문에 헛바닥으로 군화를 핥았음. '너는 매일 청소시간에는 군화를 핥아라'라고 함.

6시 저녁 식사를 시작함.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또 10명이 달려들어 가자고 함. 구타를 실시하고 웃는 모습으로 나감.

7시 내무반에서 앉아 있었음. 머리도 아프고 몸이 무거워 말을 듣지 않음. 그러자 10명이 번갈아 가며 쳐다봄. 또다시 구타가 무서워 밖으로 나감.

8시 TV시청 시간임. 다른 중대원들은 대부분 내무반에서 앉아 TV를 시청함. 그러나 나는 내무반 입구에서 무릎 꿇고 앉아 TV소리만 들어야 했음.

9시 내무반 청소 시간임. 내무반 청소를 하는데 역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부당한 대접을 받음. 고참들이 손톱이나 발톱을 깎은 것을 던져주며 먹으라라 함. 시키는 대로 먹었음.

10시 다른 사람들 취침 시간인데 나만은 잠을 자지 말라고 함. 10분후 책한권을 갖고 옴. 독후감을 써서 내일 까지 제출하라고 함. 새벽 4시까지 읽고나서 글을 쓰고 잤음. 3월 16일부터 하루일정은 비슷했음.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라는 책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음.  
수인번호 3179 '프로레타리아 독재론은 과연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 허와 실' 학생운동 전모''어느 좌익 사상범의 고백'등 전부가 반공서적들이었음.

3. 25 이날은 심한 구타에 일동(一棟) 국군 통합병원에 입실했다. 그날 저녁에 퇴원하였음.

3. 29 치아 한개가 부러짐

4. 3 이날 구타는 무척 심했음. 3번의 혼절이 있었고 다음날이 K-2영점 사격이 있는 날이었음. 그래서 '너 같은 빨갱이들은 내일 사격을 하면 사고친다'며 구타가 무척 심했음. 이 도중에 '너 같은 빨갱이들만 보면 경멸하고 싶다.'면서 군화로 얼굴을 걷어찼. 이빨 한개와 코뼈에 손상을 입음. 입원해서 다음날 오후 6시경 퇴원 함.

4. 6 4시경 더이상 구타를 못이겨 탈영을 계획함. 야전 상의를 울타리옆에 벗어두고 집합을 함. 야전상의를 가지러 간다고 하고 부대 울타리를 뛰어 넘음.

5시 이동 시내에서 붙잡힘. 부대로 끌려와 또 다시 심한 구타를 당함.

4. 7 11시 누나 결혼식 때문에 휴가 갔다오라고 중대장이 휴가증을 끊어줌.

12시 부대를 빠져 나옴.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로 부대 복귀를 결심함. 부대에 복귀함. 복귀하자 위병소에서 위병소 조장이 중대 본부로 끌고 감. 끌고 가서 복귀신고를 했음. 신고가 끝나자 수리 부속창고로 나를 데리러 고 감. 수리 부속 창고에 감금시킴. 그러나 복귀 신고까지



했음에도 (최흥기 이병의 집에 최이병이 귀대하지 않고 탈영했다고 연락했었다고 가족들이 후에 증언. 이는 최이병을 죽이고 탈영 보고하여 의문사 처리하려는 치밀한 계획으로 사료됨)

4. 11 오전 6시 10명이 몰려와 구타를 자행함. '편히 쉬었다 왔으니 편했던 만큼 댓가를 치뤄야 한다'고 했음.
- 7시 밥을 갖다 줌.
- 7시 30분 구타를 감행 함. 머리만을 계속해서 구타.
- 8시 30분 먹었던 음식을 모두 토해 냄. '때리는 것도 지치다'며 '좀 쉬었다 때리자'며 모두 나감.
- 11시경 다시 들어옴. 또다시 구타 당함. 이 도중에 혼절함.
- 12시경 밥을 갖다 줌. 내내 먹지 못하고 구토만 해 댐.
- 오후 1시 '너는 몇일 고생해야 한다.'며 또다시 구타함. 먹질 못하고 구토를 심하게 하니 구타의 강도가 줄어든 듯한 느낌이었음. 아니면 정신이 없어 구타정도를 못 느꼈는지도 모름.
- 2시 살아야 겠다는 일념 밖에 없었음. 반드시 나가서 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신념 밖에 없었음.
- 4시 다시 구타를 시작. 다시 혼절 함. 전신에 힘이 쭉 빠져 늘어져 있었음. '너 같은 놈은 구타의 흔적도 없이 죽일 수 있다'며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에 봉대를 감은 것으로 구타를 함
- 6시 식사를 가지고 왔으나 못 먹겠다고 하고 물을 갖다 달라고 함. 물을 마시고 정신을 가다듬음. '탈영을 결심'함. 몸이 너무 힘이 빠져 있었고 이러다간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음. 아니 구타를 가하는 쪽이 오늘 무척이나 오래도록 구타를 하고 죽일 것 같은 표정이었음.
- 7시 또다시 구타를 당함.
- 9시 구타로 혼절함.
- 0시 구타로 온몸의 힘이 빠져 있는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음. (다소 힘들었지만 연극을 했음.)
4. 12 새벽 4시 드라이버로 창문을 뜯고 창문을 넘어 탈영을 함. 중대 뒤산으로 들어감. 4월 12일은 저녁 어둑어둑 해질 때까지 뒷산에 숨어 있었음. 탈영을 하고 나서 1시간도 채 안되어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이 들렸고 꽤 당황하는 눈치들이었음.
- 오후 7시 30분 야산에서 내려와 이동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서울 행 마지막 버스를 탑. 이동 시내를 벗어나 일동시내를 벗어날 때 살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긴 한숨이 나왔음.

- 8시 25분 퇴계원에 도착하기 전 헌병대의 검문이 있었음. 마침 단기병들과 섞여 있었고 차가 막차라는 점에서 헌병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검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지나쳤음. 퇴계원에 도착 했을 때 또 한번 긴 한숨이 나왔음.
- 9시 10분 서울 상봉 터미널에 도착. 택시를 잡아타고 미아 삼거리로 갔음. 누나 집을 길까 망서이다가 헌병들이 지키고 있을 것 같아 포기하기로 했음.
- 10시경 서울 역에서 집에 내려갈까 무척 망서렸음. 그러나 문득 나 말고도 고생하고 있을 애국청년학도들의 고통에 찬 얼굴들이 눈 앞에 떠올랐음. 그리하여 양심선언을 하기로 결정했음. 연대에서 양심선언.

4. 15





더이상 나같은 희생자는 없어야 하며 나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전국의  
청년학도들이 하루빨리 구제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윤석양 이병의 결단력 있고 용기있었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가 남의 일인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민간사찰 뿐만 아닌 조직적이고 치밀한 녹화사업 속에서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분열하려는 책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기와 결단을 갖고 악랄한 저들의 녹화사업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닌 저 같은 입장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애국적 청년학도들이 걱정되기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양심선언을 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4천만 국민 여러분! 전국의 백만학도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서 친구, 동생, 자식들이 한번쯤 고민하고, 또는 한번쯤 겪어야 될 시련입니다.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에도 저들은 겉으로 개선하겠다,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안사 민간사찰, 녹화사업들을 무척이나 조직적이고 무서우리만치 계획적입니다. 저는 대학교 재학중에 올바른 권리를 찾고자 인간답게 살고자 무척이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체제 전복세력이니, 문제학생이니 매도하며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폭력으로 잡은 정권은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해 나가기 급급합니다. 가장 첨예한 모순들이 존재하는 곳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학생으로 낙인 찍혀 합법을 빙자한 6공식 강제징집을 통해 조기 입대했으며 신병훈련이 끝나면서 보안대로 이첩되어 2박3일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안대에서 조사를 통해 배치받은 곳은 놀랍게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짜여진 녹화사업부대, 독립중대였습니다. 독립중대라 함은 자유총연맹, 반공단체 가입자, 통일교 신자들의 무리 속에 문제학생, 애국자 등을 배치시켜 가혹한 구타와 반공교육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의 중대가 제가 속해있던 중대 근처에 6개가 존재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희생자들이 전국에 걸쳐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대의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저하고 치밀한 녹화사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화사업은 말그대로 벌거숭이 산에 나무를 심어 산을 푸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원하는 사람을 개조시켜 철저히 정권의 충실한 충견으로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살당한 채, 오직 하라는대로 강요당하며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둘째, 정권에 유리한 이념을 강압적으로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시간밖에 재우지 않고 반공서적들을 던져주며 소감문을 제출하라고 강요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오전, 오후 내내(8시간) VTR시청을 통해 이념교육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한 채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오직 VTR에만 집중하고 소감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권의 보복적 폭행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빨갱이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며 매일 7-8차례 이상이 자행되는 구타행위입니다. 또한 '사회있을 때 너같은 놈들 때문에 치를 떨었다'는 등의 말투를 통해 볼 때, 단순구타도 아닌 분명 보복적 구타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차마 견디기 힘든 저들의 군화 밑바닥을 혀로 핥았습니다.  
넷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8명이나 되는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신분에는 무척이나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분명 상관인 것 같은데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부를 때, 6급 누구누구라는(이름은 알 수 없지만) 식의 호칭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부분이 통일교 신자, 반공단체 가입자, 자유총연맹 소속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진행되는 종교행사는 다른 종교신자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중대원 총원 60명 중 23명이 통일교 집회를 갖는다는 점이며, 나에게 말하기를 사회있을 때 반공단체, 자유총연맹에서 활약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철저한 애국자들의 고립을 내온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위치조차도 숨기고 있으며 규모가 작고 정예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로 되어 있는데 반해 위치는 포천군 이동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모면에서 중대 인원은 적어도 120명 정도이어야 하는데 6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원을 통제하기 확실하며 운영하기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곱째, 의문사도 조작해 낸다는 것입니다. 중대장의 면담지시로 중대장실에 잠깐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신상파악 기록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좌익사범들이라는 표에 37명의 명단이 있었으며 그 중 맨아래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옆에 전입일자 기록으로 보아서 선배들이 분명하였으며, 모두다 사고사, 전투력 손실(정신분열증) 제대로 나타났으며, 제가 10일 부대 복귀를 했었는데도 탈영 신고를 낸 것은 의문사 죽음의 초기 조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상이 부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이땅에서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 군에서 많이 배우고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군에 입대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런 모든 희망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 “노동권 침해자 가혹행위

## 텔영시병 폭로 녹화부대 배치 구타·반공교육 주입”

### 국방부신 부인

학생운동권 출신의 현역 육군 사병이 텔영, 군부대 안에서 운동권 출신 임대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녹화사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2군수지원사령부 5000부대 800독립중대 소속 최홍기(22) 이병은 15일 오후 1시40분 연세대 총학생회실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임대 전 학생운동 경력자들은 군부대의 인권과피적인 가혹행위를 당하며 반공이데올로기

를 주입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 이병은 “지난 1월17일 논산 훈련소에 임대, 3월11일 퇴소한 뒤 이들 동안 보안사 분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학 재학 당시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밝힐 것을 강요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며 “지대에 배치 받은 뒤 매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이병은 지대에 배치된 다음 날부터 모든 훈련과 일과에서 일 외엔 “빨갱이는 죽어야 한다”며 거의 매일 김이누개 병장 등 10

여명의 자유총연맹 회원·동일교 신자 고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이빨 2개와 코뼈가 부러져 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밤에는 《학생운동의 진모》(이노 사 상범의 교백) 등 반공서적을 읽 고 독후감을 내야 했다고 말했다. 최 이병은 이런 가혹행위로 생 명에 위협을 느껴 12일 오전 4시 켜 부대를 탈영했다는 것이다. 이날 양심선언을 한 최 이병은 89년 군산대 재이기기체측공화과 2학년대에 재학중 ‘명양측전 참가 를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지난 1월17일 임대 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런 주장은 군부대 실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합계 91. 4. 16

앞으로 군에 입대하게 될 전국의 애국청년 여러분!

군대에서 고통에 찬 신음을 하고 계신 애국군인 여러분!

기만적 현정권의 합법을 빙자한 부당한 조기징집 속에서 철저히 개입된 민간사찰의 녹화사업들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권리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녹화사업들은 현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전국의 국민에게 책임을 갖고 보안사를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의문사로 숨겨간 유가족에게 정신적, 물질적 보상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4천만 국민 여러분! 전국의 백만 청년학도 여러분!

저들 기만적인 녹화사업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이며, 제2의 군사쿠데타를 꿈꾸며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현정권의 최후의 발악인 것입니다. 이제 명백 해졌습니다. 저들의 악랄한 탄압 수법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녹화사업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기무사(보안사)의 해체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 투쟁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현정권이 책임지고 기무사(보안사)를 해체해야 하며, 녹화사업의 희생양이 되었던 전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물질적, 정신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가족까지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들은 명백합니다. 기무사(보안사)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고 국민의 군대, 민족의 군대로 현 한국군을 돌려 세우기 위해 병역법 등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1991. 4. 15 최홍기



### 3. 조직사건의 조작

#### 1) 혁명적 노동자 계급투쟁 동맹(혁노맹)

##### 혁노맹의 실체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조작

국군보안사령부(현재 기무사)와 치안본부는 지난해 8월 22일 '혁명적노동자계급 투쟁동맹(혁노맹)' 사건을 조작 발표하였다. 군, 경 수사당국은 혁노맹이 산하 중앙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원 10명을 군부대에 침투시켜 무장봉기를 사전 준비했다며 이 조직을 6공화국 들어 최초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보안사와 치안본부에 따르면 혁노맹의 실체를 무장봉기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혁노맹 내에 중앙군사위원회를 두고 학생들을 각 학원 및 군대 내에 침투시켜 '무기탈취', '요인암살', 혁명군대 창설' 등의 준비작업을 해왔다고 한다. 먼저 보안사의 조작에 의한 민민탄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중앙군사위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개략적이거나 혁노맹의 발전사와 정치노선을 살펴보겠다.

혁노맹은 89년 8월의 1차대회에서 전국적 전위조직을 표방하며 출범했고, 그 이전에는 '혁명의 불꽃' 그룹으로 88년 4월경부터 있어왔다. 그러다가 2차대회에서 기존의 활동이 전위적 질을 담보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자진해체하여 소규모 학습그룹으로서 축소 재편되었다. 한편, '혁명의 불꽃' 혁노맹은 정세를 결전이 예고되는 혁명적 정세로 규정하고 정세를 관통하는 핵심 슬로건으로는 임시혁명정부를 결의한다. 그리고 임시혁명정부의 물리적 힘이자 현 정권에 대응하는 민중의 부대로서 혁명군대의 창설을 주장한다. 상식적으로, 수사당국의 발표대로 군대를 민중의 군대로 재편하는 것이 조직원을 몇명 군에 투입하고 그래서 사병 몇명을 조직한다고 혁명이 가능한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또한 보안사는 혁노맹이 '들불' 그룹으로 성장전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안사, 치안본부의 합동수사 발표는 '들불사건' 혹은 '노동자 지하당건설기도사건'이 아니라 혁노맹 사건으로 축소발표했다. 그 이유인즉 '들불'은 당건설의 준비위가 아니라 혁노맹이 해체되고 축소 재편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말대로 혁노맹의 중점사업이 군대를 재편하는 것이었다면, 이들은 마땅히 그에 관한 방증 자료를 증거로서 제시해야하고 그 증거는 기존에 축적된 경험의 분석이라든지 타국의 실례, 중앙의 활동 지침서, 군 투입자의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등 실로 방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증거로 첨부한 것은 대구 민학투련에서 나왔다는 3페이지의 '군복무활동 투쟁지침서' 뿐이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혁노맹이 작성한 것이었냐면 그것도 아니다.

혁노맹은 모든 문건을 전동타자기나 컴퓨터로 찍어서 보관하는데 유독 위의

'지침서'만이 딱 한 부 4벌씩 타자기로 활자화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혁노맹 군사위의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하며 명백하게 조작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때, 혁노맹은 '불꽃'에서 무장봉기의 준비를 역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억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구속, 수사중이었던 10명의 현역 군인들은 군사위원장으로 지목된 임찬수를 포함해서 모두 민학투련을 탈퇴하고 군에 입대한 경우다. 민학투련 조직국장 혐의로 구속된 이한준씨(1공수여사단 61항공단)는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독수리 아파트에서 혼자 보초를 서는 방위병이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음모를 꾸미고 혁명군대를 창설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민학투련 중앙위원 혐의로 구속된 조재은씨의 경우는 89년 8월경 조직활동을 그만두고 그해 12월에 입대하여 5사단에서 소총수로 철책근무를 하였다. 그는 입대당시부터 줄곧 보안사의 잦은 호출과 감시, 사전검열을 받아왔다. 그리고 보안사에 연행된 직후 부대에 전화를 건 조재은씨의 부친께 "실제로 한 일이 없으니까 별일은 없을 겁니다."라던 부대 중대장의 발언은 조재은씨의 무고함을 간접적으로 입증시켜주고있다.

경기도 벽제 2127부대 법당에서 청소를 하며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신승호씨(외대 정외과)는 사찰 청소나 초파일 등의 중요행사때 연꽃이나 만들던 방위병이었는데 그런 그가 불공드리러 온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장봉기를 선동하거나 법사(증명)나 다른 군인과 함께 혁명군대조직은 모의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입대당시부터 운동된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상적으로 감시당하고 호출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육군 35사단에서 방위병으로 구속된 정현호씨는 89년 7월경 활동을 정리하고 전남 남원 고향으로 돌아간 후 그해 12월에 입대했다. 그러므로 입대 전까지의 사실을 미루어볼때, 조직과의 선이 끊긴 상태에서 조직의 지도를 받고 무장봉기를 준비하기 위해 군에 침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조작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와같이 혁노맹사건으로 구속수사중이었던 10명의 현역군인들은 조직에서 이탈하였거나 제명된 조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사는 구속된 이들 군인들의 과거 활동을 빌미삼아 '군 내에 침투한 조직적 인자'로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사는 혁노맹 활동의 결정적인 증거로 대전 32사단의 동구대대 군수과에 근무하다 구속된 김선환씨(충남대 농공학과)가 1파운드 가량의 TNT등을 반출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총탄환은 수공예품 목걸이를 만들려한 것이었고, TNT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빼낸 것에 불과했다. 그것은 병사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진행되던 일이다. TNT를 요인암살, 무장봉기를 하려고 빼냈다면 그것을 책상서랍에 넣어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혁노맹 전술의 핵심을 살펴볼때, 군사위의 1차적 임무는 노동자, 민중을 단단하게 꾸리는 것이고, 철저히 여기에 근거한 후-물론 시간의 선차성 문제는 아니지만



-군대에 조직원을 보내든가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혁노맹은 군사위의 기본업무에 대해 원칙만 제기하는 수준이었지 실제적인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은 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10명씩이나 되는 조직원을 군대에 보낼 역량이 가능한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임 찬수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혁노맹의 중앙군사위, 무장봉기노선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보안사에서 강변하는 군투입의 허구를 보다 명백히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병제나 용병제가 아닌 개병제인 남한 군대에서는 복무기간이 2년 반이라는 시한에 묶여 지속적인 군 작업이 어렵다는 불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군대가 민중의 아들인 사병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결국은 민중의 편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 언론, 통신,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 및 수도권과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 마산, 창원 등 남해공업단지에서 전민중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서 중부지역까지 남하, 북상한다면, 그리고 그 대열이 군대에 대해 충분히 도덕적 우위(군사적 우위가 아니다!)를 확보한다면 민중의 바리케이트가 군이 결정적으로 동요할 때까지 버티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군대가 민중의 도덕적 우위에 흡수만 된다면 혁명은 성공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단호한 봉기만이 평화적 승리의 길을 보장한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무장봉기' 하면 경험세대는 물론이고 미경험세대마저도 금방 6-25를 연상하게 되고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세력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혁노맹은 6-25를 찬양하는 전쟁승배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평화주의자다. 또한 혁노맹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주의자도 아니다. 평화로운 세상,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한다면 그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한다. 6-25때와는 또 달라서 첨단 기술의 가공할 무기가 개발된 현재 전쟁이 일어나면 축적된 문명과 인간은 모두 파괴되고 만다. 따라서 평화혁명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무장봉기는 단호해야 하고 이것만이 피 한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혁명을 보장해준다."

그리고 임찬수씨는 어떻게 보면 꿈같은 얘기나 역사적 실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꿈을 꾸려면 이정도 야무지게 꾸야 한다는 말도 스물스물스럽게 덧붙였다. 이러한 논지가 혁노맹의 정확한 입장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혁노맹에서 군대작업은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은 보안사의 사전 의도와는 정면으로 모순된다.

#### 구속자 인적 사항

김선환	단기사병 (042)	527-7278
조재은	5사단 (0591)	745-5595
이동구	현역 (0454)	42-6313
남현우	현역 (0461)	32-7055
양성호	단기사병 (042)	622-0929
강근목	단기사병 (0412)	2-2715

## 2) 서울대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 사건 경과

1991년 3월 18일

: 배병창 상병이 말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에 봉천사거리에서 기무사 수사관들에게 연행. 송파구 장지동 기무사 분실에서 4월 6일까지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로 석방됨.

4월 29일

: 김용호(현역복무중)가 기무사 수사관에게 연행.

6월 2일 - 6월 4일

: 6월 2일 저녁에 실종 사실을 발견한 즉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각종 단체에 소재 확인 요청.

: 치안본부 대공분실, 안기부, 기무사 등 강제 연행되었을만한 곳을 찾아가 연행 여부를 확인하려 노력.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는 "없다"고 발뺌함.

6월 5일

: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있음을 확인. 이날 처음으로 부분적인 면회 이루어짐.

: 대부분의 구속자들이 잠을 잘 못자고 심리적 위축 상황에서 말을 못함. 가족들의 이러저러한 질문에 반응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실정. 가족들이 면회하기 전 수사관들은 "상담"이란 명목으로 가족들을 만나 "진술에 협조케 하라, 그러면 출세에 지장없게 해주겠다.", "당신 아들은 빨갱이다." 는 식의 갖은 회유, 협박을 함. 구속자들의 경우, 누가 연행되었고 어떤 식으로 이번 사건이 꾸며지는지도 몰라 궁금해 함. 이날 오후 2시 경 치안본부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사건 공식 발표.

: 오후 6시 가족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가족·학생·제민주단체가 긴밀히 협조해 공동 대응하기로 함.

6월 7일

: 오전에 집단적인 면회를 통해 구속자들에게 사건보도 내용 및 학생 가족 대책회의가 꾸려졌음을 알려줌.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불법연행, 압수수색, 면회접견거부, 잠안재우기 고문 등 법위반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영장 보자는 소리를 안했다."는 등하며 발뺌. 수사관들은 가족들에게 "자술서를 쓰고나면 내보내 준다." "머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민가협, 학생들 말에 속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신상에 좋다." 등 신경질적이고 당황해하는 모습들. 특히 면회시 어머님들이 쪽지와 손바닥 메모 등을 통해 여러



정보를 건네주자 쪽지를 빼앗는가 하면, 황급히 구속자와의 면회를 중단시키고 데려가는 등 사건 조작에 혈안.

: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라운지에서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사건 날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짐

6월 8일

: 오전 집단 면회 요구에 대해 전경을 동원하여 강제 해산 시도. 몇분의 어머니님 초과상 입음.

: 이날 서울대 총학생회는 1000여명이 아크로에 모여 국민대회 출정식을 겸해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사건 날조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 퇴진 투쟁을 완강히 수행할 것을 천명.

6월 10일

: 기무사에서 조사 받고 있던 3명의 구속자에 대해 처음으로 변호인, 가족 접견이 이루어짐. 기무사에 연행된 구속자들의 경우, 기무사의 강압수사에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로 겁에 질려 있는 표정들. 면회를 통해서야 사건 내막을 알게된 듯. 자신이 왜 연행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될지 잘 모름.

: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의 가족 면회를 통해서도 구속자들이 “관악학우들 몸 조심할 것”을 부탁함.

6월 11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6명의 변호사로 공동 변호단이 선임됨. 이날 오전 8시부터 집단적인 면회요구에 대해 ‘정해진 날짜에 올 것’을 강요했으며, 4인의 변호인 접견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증이 없고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변호인 접견을 거부. 면회된 가족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성립의 결정적인 증거로 “강령, 규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것을 수사에 촛점으로 삼고 있음이 드러남. 구속자들은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눈치였으며, 가족들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면회를 요구하며 농성.

: 오기형(법대 86학번) 학형은 사건 조작에 맞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왔으나, 11일 치안본부에서 철야수사를 진행중인 형사들이 노골적으로 “순순히 불지 않으면 동생을 잡아넣겠다.”라고 협박했음.

6월 12일

: 오후 4시 관악 학우 400여명과 가족들이 치안본부 항의 방문을 함. 400여명의 치안본부 앞 연좌연와시위를 통해 치안본부 관계자와 학생, 가족간의 대표 면담이 이루어지고 학생과 가족들은 “사건조작 중단”, “접견제한 해제”, “고문수사 여부 해명”, “수배조치 해제” 등을 요구. 이에 “접견을 자유롭게 시켜주겠다.”, “변호사 접견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답변.

이후 면회를 갔으나 약속과는 달리 면회를 거부. 이 날짜에 정해준

사람만 면회가 됨.

6월 13일

: 가족 면회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총 12명 중 2명에 한해 30분간의 실갱이 이후 이루어짐. 자신들의 수사가 일단락된 후인 다음 주 월요일 전원 변호사를 접견시켜주겠다고 함. 사건 조작을 위한 강압 밀실 수사 의도를 분명히 함. 가족들도 이제는 더욱 강경한 투쟁 방식에 호소할 것을 결의함.

6월 28일

: 김용호씨 1차공판이 가평 5군단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담당 검사가 국보법 재판을 맡아본 경험이 없어 재판이 연기됨.

7월 2일 - 7월 4일

: 91년 5월 13일 있었던 전대협 구국결사대의 민자당사 점거농성 사건 구속자 중 치안본부에 의해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의 조직원으로 발표된 김봉기(외교학 89), 권순한(신문학 89)에게 치안본부 대공과 손강호, 오문석 외 3인이 찾아와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건으로 조사하겠다고 3일 동안 계속 찾아옴. 치본조사를 거부하자 재판 후 집행유예로 나오면 교도소 문 앞에서 연행, 조사하겠다고 협박함. 치안본부의 이러한 작태는 민해활조 사건의 조작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즉 치안본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국민여론을 자극할 요량으로 「민해활조」가 전대협 민자당사 점거와 강경대 장례식 시위를 배후조종하였다고 발표하고는 그에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임.

7월 4일

: 김용명 이병이 수방사에서 변호사와 가족 접견시에 기무사에서 조사받을 때 20~30분간 뺨을 계속 얻어맞고 벽을 맞대고 무릎 꿇고 앉아서 몇 시간씩 기대지 못하게하고, 의자 등받이에 배를 대고 수평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의 구타와 고문을 받았다고 폭로함.

**민해활조 조작이다.**

**민주세력 총단결로 치안본부, 기무사를**

**박살내고,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



**구속자 인적 사항**

**\* 군인(기무사 연행자)**

김용명 이병 서울대 사회학과 87 제 52사단 210연대 수송부 단기사병  
 이재규 일병 서울대 사회학과 87 제 26사단 73연대 수송부 복무 중  
 최철호 상병 서울대 사회학과 88 제 50사단 단기사병 복무 중  
 김용호 서울대 사회학과 85 제 5군단 66사단 포병대대  
 박용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86

**\* 민간인(치안본부 연행자)**

김광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85 학부 재학 중  
 오기형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86 학부 재학 중  
 방민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86 졸업, 직장인  
 윤운상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86 졸업, 동 대학원 재학 중  
 조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86 졸업, 직장인  
 윤영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86 본과 재학중  
 김성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86 학부 재학 중  
 김남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86 졸업, 동 대학원 재학 중  
 정중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86 학부 재학 중  
 신현영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87 학부 재학 중  
 안용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8 학부 재학 중  
 조인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88 학부 재학 중

**\* 변호인**

이종걸 : 522-2233  
 박승욱 : 588-0097, 587-0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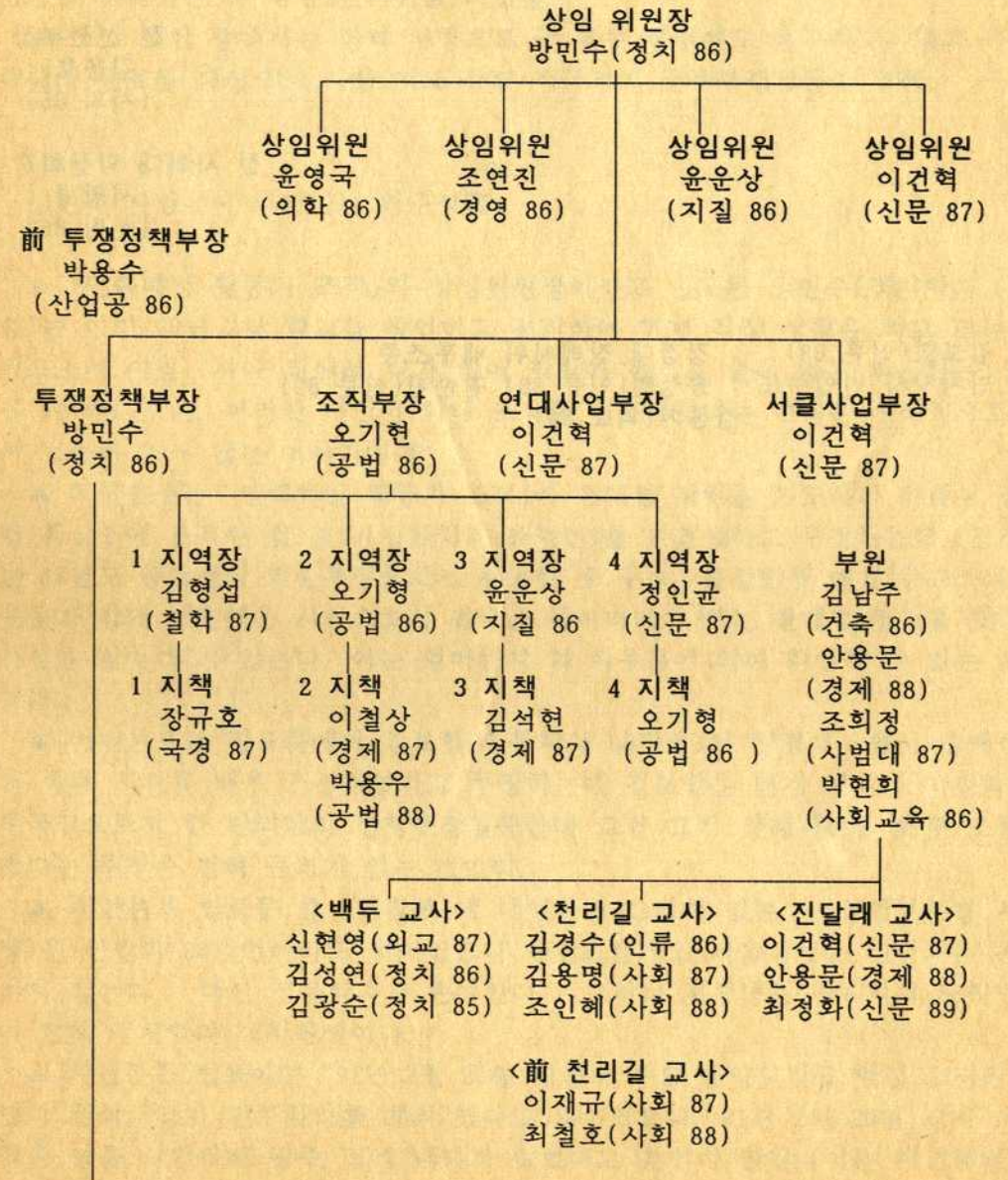
**\* 가족연락처**

김용명 이병 박인수(모) : 885-6685 관악구 신림9동 253-13  
 이재규 일병 이준형(부) : 0331-691-4241 평택군 평성읍1 송화 321 161-2  
 이재학(형) : 499-1327 성동구 성수1가 2동 8-28  
 최철호 상병 최해일(부) : 053-653-8869  
 김용호 홍인순(친구) : 312-7049  
 박용수 : 0591-52-4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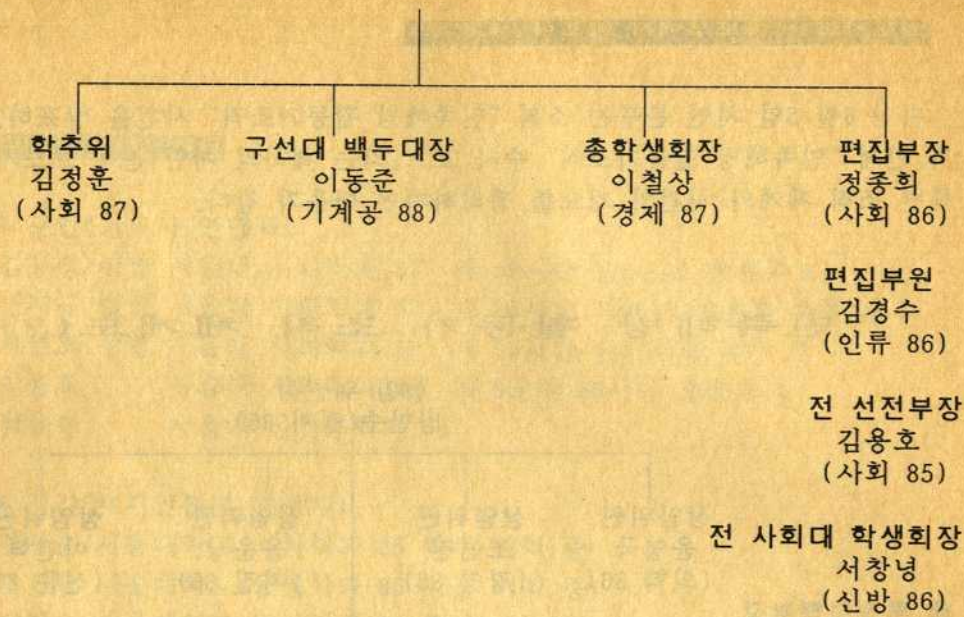
**기무사와 치안본부에서 발표한 사건개요**

지난 6월 5일 치안 본부는 소위 "민족해방 활동가조직" 사건을 발표하였다. 「이적 단체 "민족해방 활동가조직" 수사 보고」라는 제하의 치안 본부 보도자료에 수록된 조직 체계와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체계도(?)」**







- \* 김보협(인류 88) : 강경대 장례시위 배후조종
- \* 민자당사 난입주도 : 송성명(인류 88) 권순한(신문 89) 김봉기(외교 89)

■사건의 개요■

- ▲ 「민족해방 활동가조직」은 1989년 2월 방민수(86학번 정치학과)등을 서울대 각 단과대학 좌익 핵심세력 19명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지하 이적 조직으로
- ▲ 이들은 서울대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조직원 김 경수(인류학과 86학번)을 전대협 핵심부에 파견, 전대협 장악을 기도하여 왔으며
- ▲ 60여차례에 걸쳐 각종 폭력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해 왔는바, 조직원 김보협(인류학과 88학번)은 강경대 열사 장례식에서 폭력 시위를 배후 조종,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극력한 시위를 하였음
- ▲ 조직 핵심 중에서는 현역 사병으로 군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과 후 군대내의 동료들 대상으로 사상 지도 등의 적극적인 군부투쟁활동을 획책.

■인적 사항에서 나타나는 허구성■

- ▲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의 상임위원장이라고 발표된 방민수(정치학과 86학번)는 이미 90년 2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여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침 7시에 집에서 나가 일어 학원에 들리고 출근, 업무, 퇴근하는 생활을 계속해온 바, 이러한 사람이 학내 조직을 이끌어왔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이다.
- ▲ 치안본부는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이 전대협 장악을 기도하기 위해서 전대협 핵심부에 조직원 김 경수(인류학과 86학번)를 파견했다고 주장하는데, 김경수는 89년도 총학생회 학술부장으로 활동한 후 구속, 출감한후 매일 등교, 과 학우들과 함께 생활해온 사람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전대협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얼마든지 과 학우들에 의해 학인될 수 있는 사실이다.
- ▲ 치안본부는 발표문에서 김보협(인류학과 88학번)이 강경대 열사 장례식에서 폭력 시위를 배후 조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김보협은 현재 사회대 학생회 사무국장으로서 한 단과대의 집행부장일뿐인데 그런 그가 장례시위를 배후 조종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 ▲ 치안본부 발표문 중 '편집부'에 애매하게 그려져 있는 '서창녕'(본명 서창녕)은 신방과 86학번이라도 되어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서울대에는 신방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신문학과가 존재한다. 그러나 서창녕은 경제학과 86학번이며 현재 정치학과 대학원생이다.
- ▲ 치안본부 발표에는 "91년 2월 20일 이견혁 주도 중앙위원급 핵심 조직원 15명이 참석, 정기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되어있으나, 91년 2월 20일 당시 이견혁은 설을 쇠기위해 광주 집에 내려가 있었다고 본인이 말함.(이는 이견혁의 가족들이 증명할 수 있음)



### ■조직 체계상의 허구성■

▲ 치안 본부에서 발표한 체계도에 따르면 상임위원인 이건혁이 김남주, 박현희 등을 지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혁은 87학번, 그리고 김남주, 박현희 등은 86학번으로서 기본적인 대학 사회의 질서가 학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치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 치안본부는 89년 초 핵심 조직원 31명이 회합, 중앙상임위원 4인을 선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체계도에 나타난 중앙 상임 위원 중 이건혁의 경우 이는 2학년 겨울 방학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이러한 나이에 중앙상임위원이라는 지위에서 활동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체계도에 들어있는 이철상(경제학과 87학번)은 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자 서총련 부의장이며 조직 내에서 지위는 '2지책'이다.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치안본부는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이 학생회를 장악 배후 조종하였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짐작되나 이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바, 서총련 전대협 사업으로 바쁜 까닭에 평소에 학교에서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그가 어떻게 학내에서 '2지책'이라는 지위를 가질 수 있겠는가?

### ■연행과정에서의 불법성■

치안본부는 무소불위의 폭력집단인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전원이 영장없이 불법 연행되었으며, 가택 수사 역시 수색 영장 없이 불법으로 진행되었다. 몇 가지 사례만 들면 김성연(정치학과 86학번)의 경우, 6월 2일 오후 1시경 이문동 고시원에서(그는 대학원 시험 준비 중이었다.) 우유를 사러 슬리퍼를 신고 잠옷 차림으로 나가다 신원을 알수 없는 4명에 의해 강제로 승용차에 실려 연행되었다. 어머니가 안기부, 치안본부 등을 이틀동안이나 수소문하고 다니셨으나 없다고 잡아떼었다. 그들은 불법 연행에다 임의 동행시 수사 제한 시간인 48시간을 초과한 불법 밀실 수사를 자행하였다. 조연진(경영대 86학번, 졸업하여 직장을 다님)의 경우 6월 3일 3시경 직장에서 연행되어 이후 불법 가택 수사를 당하고 다수의 책을 압수 당함. 윤영국(의대 본과 2학년)의 경우, 친구의 말에 의하면 3일 9시에 수업이 있는데 나오지 않아 저녁에 집에 전화해보니 학교에 간다고 8시 30분에 나갔다고 함. 작년에 의대 학생회 총무부장을 지냈으나 현재는 학업에 열중해온 관계로 부모님이나 친구 모두가 혼자서 여행간 것으로 생각했음. 6월 5일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고서야 확인됨. 집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는데(텔레비전 발표시 압수품으로 진열되어있음) 이 컴퓨터는 동생의 컴퓨터이고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데도 불법적으로 소유권 침해.

###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은 명백히 조작된 것이다!■

결단코 우리는 이번 사건이 민주를 말살하고 전대협을 매도하여 애국 세력을 탄압하고자하는 조작된 사건임을 단언한다.

이미 구속된 학우들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볼 때 치안본부의 발표내용은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졸업을 하고(구속된 사람 18명 중 13명이 졸업생) 대학원 직장 혹은 군대에 있어 학내 활동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치안 본부 발표문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가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등, 이번 사건이 날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너무나 많다.

### ■기무사의 학생운동 탄압 신전술■

진주에서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던 배병창 학형(철학86)이 제대를 불과 며칠 앞둔 3월 -중순 경 연행되어 구속 이후 한달 여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수사받음. 이후 6월 초 학교 전체로 사건이 확대! — 서울대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사건.

군 복무 중인 송재봉 씨가 입대 전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기무사에 연행, 5월 22일 구속된 후 총학생회에서 일했던 선후배들에게까지 사건이 확대!

기무사 수사관들이 서울에서 대거 내려와 관련자 조사와 수사 지휘 —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신현우 씨 등 2명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군 복무중인 이충희 씨 등 3명이 기무사에서 같은 혐의로 구속! — 상지대 「민주주의 학생 연맹」 사건.

작년 10월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민주 인사들에 대한 사찰이 보안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이 폭로된 후 이를 규탄하는 온 국민의 목소리가 노도같이 번져 나갔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아울러 보안사가 기무사로 명칭을 바꾸고 이 후 '기무사의 임무는 순수한 군대 내의 문제로 제한될 것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한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금 확인한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애국 청년과 민주 인사들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은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더욱 악랄한 탄압의 마수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음을!

글의 서두에서 보듯이 외대 사건 이후 정세 반전을 피하며 진행되고 있는 노태우 정권의 발악적인 탄압 책동 속에서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터진 세 건의 조직 사건들의 진행 양상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수사 초기에는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군 입대자에게 수사를 집중, 강압 수사와 공포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허위 진술서를



받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체계를 날조, 학교 전체로까지 수사와 검거를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의 폭력성 앞에 무방비 상태로 존재하는 군 입대 학우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게 되며 언제 어떤 조직 사건에 연루될 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폭로되어 다시금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위 '녹화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군 입대 학우들을 희생양으로 하여 조직사건 날조를 일삼고 있는 기무사의 폭력성과 그 잔인함에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 없다.

기무사는 조직사건 날조와 군 입대 학우들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조작 사건에 관한 서울대 비상대책위의 입장**

1)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은 명백히 조작된 것이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더라... 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의 피가 채 말라 민주의 씨앗으로 새롭게 싹트기도 전에 또다시 악명 높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의해 우리의 애국학우들이 "민족해방활동가조직"이라는 그림표에 짜맞추어 졌다. 5공과 다르기에 보통 정권이라 부르라 했던 그 더러운 입에서, 어느 민주국가보다도 인권이 잘 보장된다는 식민지 조국 강토에서 또다시 우리 학우들은 백주대낮에, 심지어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를 하던 집에서조차 강제 불법 연행되어 조직사건의 희생물에 육박어졌다.

결단코 우리는 이번 사건이, 민주를 말살하고 전대협을 매도하며, 애국세력을 탄압하고자 하는 조작된 사건임을 단언한다.

첫째, 이번 사건은 이미 한달 전의 배병창군의 기무사 연행수사에서 보여지듯이 미리 군대에서 기무사에 연행되었던 사람으로부터 강압적 분위기 아래서 조작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단 3일만에 18명의 학우를 불법연행한데서 알 수 있듯이, 강경대 학우 폭력 살인 사건과 김귀정 학우 사건 등 일련의 위기에 처한 현정권이 미리 그림표를 짜놓고 강제 연행하여 이리저리 짜맞추어 급조한 것임이 명백하다.

둘째, 이번에 구속된 우리 학우들은 이미 졸업을 하여 대학원, 직장에 다니거나 군대에 있어 학내 활동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셋째, 이번에 구속된 대부분의 학우들이 전직 학생회 간부였거나 현재 학생회 간부들이라는 사실에서 보듯, 관악 2만 학우들과 함께 힘차게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던 사람일지언정 체제 전복 세력이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누가 보아도 명백하지 않은가!

2) 이번 사건의 본질은 현 정권이 애국민주세력을 좌경용공으로 매도하여 위기 상황을 탈출하고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 단언한다.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현 정권은 5월 국민항쟁 과정에서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탈출을 모색하던 현 정권은 이번 외대 학우들의, 참교육 말살의 선봉장, 폭력살해 주범 정원식 공안총리에 대한 정당한 응징투쟁을 빌미삼아 강도높은 이념공세를 강화하여 정국을 또다시 공안의 분위기로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5월투쟁의 과정에서 대중성과 투쟁성이 다시금 입증된 학생회와 백만학도의 대중조직이자 구심점인 전대협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학생회와 전대협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책동임이 분명하다. 단언하건데 이 사건의 본질은 민주세력을 말살하여 현 위기 국면을 탈출하고 광역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하여 장기집권의 발판을 닦고자 하는 현정권의 기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

3) 현 정권은 다음의 요구를 즉각 실행하라!

첫째, 구속된 우리 학우들을 즉각 석방하라!

둘째, 민주세력에 대한 극악한 공안탄압, 학생회와 전대협 와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치안본부, 안기부, 기무사를 즉각 해체하라!

넷째,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고 노태우는 즉각 퇴진하라!

4) 위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시, 비상대책위는 애국학우에 대한 사람과 노태우 정권에 대한 분노를 모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매일 지속되는 치안본부 항의방문 투쟁을 전개한다.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와 폭압기구 해체를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대국민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셋째, 7일, 8일, 10일, 13일 연일 계속해서 관악 2만 학우의 항의 규탄 시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 진군 47년 6월 7일

서울대 우리 학우 즉각 석방을 위한 학생·가족 비상대책위원회



#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서울대 18명 구속영장

## 학생회 "관심 돌리려 조직"

치안본부는 5일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른 민족해방민주주의(NLPD)혁명론을 추종하면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각종 시위를 주도하거나 사상학습을 해온 '민족해방활동가 조직'을 적발해 이 단체 중앙상임위원 방민수(24·서울대 정치4)씨 등 18명

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방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중 이적단체 구성·가입조항으로 지난 달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9년 2월 김성연(24·서울대 정치4)씨 등 서울대생 19명이 중심이 돼 이 단체를 조직한 뒤 조직원 이철상(23·경제4)씨를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당선시켜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지난 5월13일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60여차례의 각종 시위를 주도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단체의 조직원이 모두 1백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민족해방활동가 조직'이 서울대 민족해방계 지하서를 총망라한 조직으로 전대협 운영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산하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사상서를 '천리길' '백두' '진달래' 등을 운영하면서 주체사상을 학습해왔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이 신청된 18명 가운데 현역 군인인 배병창(23·서울대 철학4 휴학)씨 등은 군 동료들을 대상으로 의식화활동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이런 발표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후 2시 교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경찰의 수사는 범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확산돼온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공해 낸 조작극"이라고 비난했다.

◇구속영장신청자 △김성연 △오기형(24·서울대 공법4) △김광순(24· 정치4) △윤영국(23· 의대본과2) △방민수 △안용문(21· 경제4) △정종희(23· 사회4) △조인혜(21· 사회4) △윤운상(24· 지질학 대학원1) △김남주(24· 건축 졸) △조연진(24· 경영 졸) △신현영(22· 외교3)

◇구속영장신청 군인 △배병창 △김용호(25·서울대 사회4 휴학) △박용수(24· 산업공4 ) △최철호(22· 사회2 ) △김용명(22· 사회 졸) △이재규(22· 사회4 휴학)

한겨레 91. 6. 6

# 휴가 방위병 8일째 구금조사

## 군기무사 서울대 휴학생...자택 압수수색

국군기무사 진주지구대가 이 지역 기무사 OO부대에 근무하던 서울대 운동권 출신 휴학생 배병창(21·철학3·휴학) 일병을 연행, 8일째 부대 안에 구금한 채 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

가협)는 이날 배 일병이 지난 20일 휴가를 얻어 서울에 왔다가 진주의 집에 내려간 직후 기무부대 요원들에게 연행됐으며, 혐의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무부대측은 배 일병을 연행한 직후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배 일병이 지니고 있던

책자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일병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88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을 맡는 등 학생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다 89년 10월 입대, 진주지역 기무부대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해왔으며 이달말께 소집 해제될 예정이었다.

한겨레 91. 6. 28

# 3) 자주대오-청주대

청주대학교 자주대오 사건 경과(1991. 6. 11-7. 12)

학교를 졸업하고 4월 군에 입대 신병훈련을 받던 송재봉(청주대 정외과89졸)이 5월 22일 기무사 요원에 의해 연행 구속됨.

5월

: 권영환군(지역개발학과 86학번)이 자대(27사단)에서 기무사에 연행

6월 11일(화)

: 새벽 5시경 백상진(신방86), 정순배(신방89졸), 임광희(신방90졸), 박선영(일문과 재학생), 유정원(사회학과 89졸), 송은아(조경과 재학), 정준태(지역개발학과90졸), 박구원(조경과 재학) 등이 경찰에 의해 연행 한편 정수범(정외89졸), 추병국(전산과90졸), 고원준(사법과 군입대 휴학) 등이 거의 같은 시간에 군당국에 의해 연행. 일반인은 청주 경찰서에 각각 분리 수감 확인.

자정에 경찰이 송은아 자취방 수색하여 방명록, 컴퓨터 디스켓과 제문건 압수

6월 12일(수)

: 정수범 상병(병무청 근무), 고원준 일병(공군부대 근무), 추병국(54사단 845곡사포대 근무), 권영환 병장(27군부) 등 4명 서울 특전사 영창에 수감증임을 확인. 10시경 TV방송국, 일간지 기자들과 청주대 총학생회, 충북대협, 충북민연, 충북인권위 4개 단체가 기자회견(회견내용 별첨 참조) 하여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폭로. 임광희(신방90졸), 박구원 훈방. 청주대상 200여명이 불법연행에 대해 규탄집회후 구속자의 부모와 재학생 30여명이 면회투쟁 벌여서 면회함. 21시에 연행자에 대해 철야조사가 개시 되었으며 TV중앙뉴스와 지방뉴스에 사건이 보도됨.

6월 13일(목)

: (02:10) 백상진, 송은아, 정준태, 박선영, 유정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정순배 불구속 입건. 정순배는 수사체계가 기무사->치본->도경대공과로 이어진다고 진술하면서 현재의 학생운동에 대한 와해가 목적인 듯하다고 증언. 오후에 백상진, 송은아, 정준태가 서부서로 이송되고 가족이 면회함.

6월 14일(금)

: 14시에 정순배가 신원보증 관계로 경찰을 만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청주서에 가서 재조사를 받고 18시에 나옴. 15시에 서부서에서 백상진, 송은아, 정준태 면회를 가족, 충민연과 학생들이 면회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의 초점이 현재 활동 중인 후배에게 맞춰져 있고 수사의 목표가 조직



침탈과 정치적 공세에 있음을 확인. 백상진 씨는 사건 관련자들이 자주대오라는 조직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으며 이미 시니리오는 짜여져 있고 경찰 조사는 꺾어 맞추기 식에 불과하다고 전함. 송재봉 이병, 강원도 고성 22사단 영창으로 이송. 정수범 상병 구속영장 발부.

6월 15일 (토)

: 10시에 충북지역 4개 단체가 제2차 기자회견을 갖고 연행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자주대오 사건에 시나리오가 이미 다 짜여져 있었으며 조직체계, 강령, 규약, 기관지 자주언론은 조작된 것이며 군 복무중인 송재봉씨와 권영환씨가 기무사에 연행, 구속된 뒤 동기 후배들에게까지 사건이 확대된 것으로 보아 기무사에 의한 녹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 13시 규탄집회에 200여명이 참석. 18시에 충북대에서 '청주대 이적단체 조작규탄과 민주운동 탄압분쇄 결의대회'를 500여명이 참석하여 치름. 송재봉씨 부친과 약혼녀가 고성에 면회갔으나 거절당함.

6월 17일(월)

: 정준태, 유정원 가족이 면회. 한겨레신문에 2차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된 뒤 가족 외엔 면회가 통제.

6월 18일(화)

: 민가협, 윤후사, 강집위, 서울대 민해활조 비대위, 청주대 대책위 모임에서 공동대응 논의.

6월 22일 (토)

: 송재봉 이병의 부모님이 면회했으나 거부됨. 추병국 이병의 부모님이 서울 기무사에서 면회. (군수사당국자가 배석하여 자유로운 대화가 제한당함)

6월 25일(화)

: 12시에 구속자 가족모임에서 대응책 논의.

6월27일 (목)

: 국군기무사가 자주대오를 학군 연계 지하조직이며 송재봉 이병, 권영환 병장이 배후 총책이고 구속된 5인(군복무자)이 군내에서 주체사상 선전 등 반미 이적 활동을 해 왔다고 발표.

7월 1일-2일

: 권영환 병장, 추병국 이병, 정수범 상병, 고원준 일병 각각 자대 영창으로 이송된 것을 확인

7월 6일

: 민변 변호사가 구속자와 부모를 접견함.

7월 8일

: 송재봉 이병 부친과 박성민 변호사가 송재봉 이병을 접견. 송이병은 18일 가랑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좀 더 일찍 면회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기무사에서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있지도 않은 강령을 작성하고 조직체계가 어느정도 있었다고 진술함.

7월11일

: 실무자 모임에서 서사연 측으로부터 서사연 탄압에 대해 보고받음.

7월12일

: 정수범, 고원준. 부모 면회함.

7월 13일

: 청주 미평교도소 수감자 4명에 대해 서울 민변에서 이덕우, 정미화 변호사가 선임됨으로써 관련 구속자에게 변호사 선임이 완료됨.

구속자 인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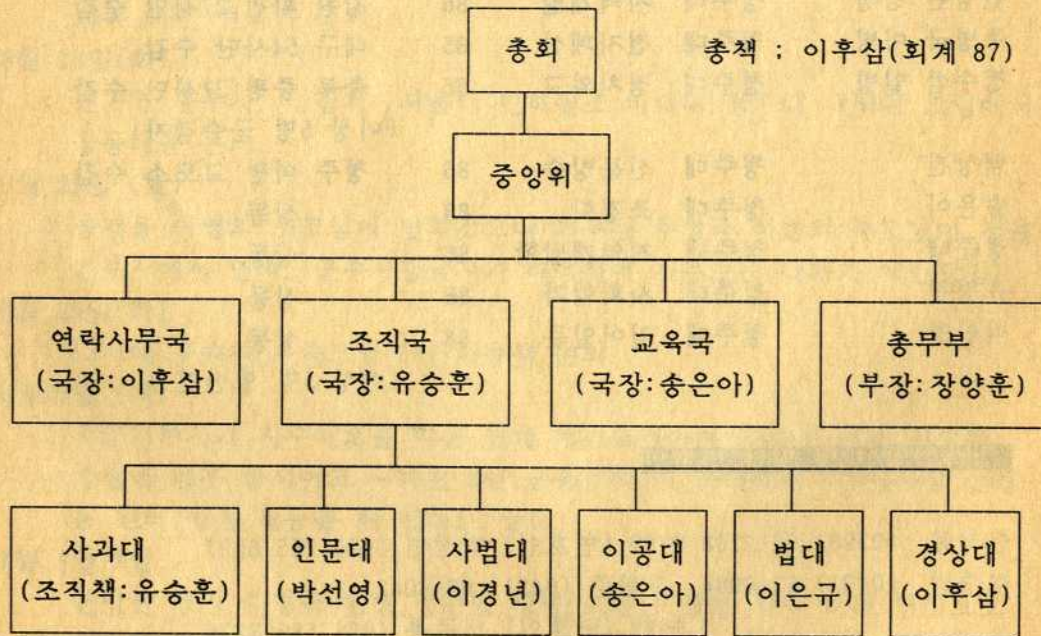
성명	학과/학번	수감지
고원준 상병	청주대 공법학과 86	충북괴산 37사단 수감
송재봉 이병	청주대 정치외교 86	강원 고성 22사단 수감
권영환 병장	청주대 지역개발 86	강원 화천 27사단 수감
추병국 이병	청주대 전자계산 85	대구 54사단 수감
정수범 일병	청주대 정치외교 86	충북 증평 37사단 수감 (이상 5명 군수감자)
백상진	청주대 신문방송 86	청주 미평 교도소 수감
송은아	청주대 조경학 88	상동
정준태	청주대 지역개발학 86	상동
유정원	청주대 사회학과 86	상동
박선영	청주대 일어일문 88	상동 (이상 5명 일반인)

가족연락처 및 담당 변호인

송재봉	(0398) 62-2268 **** (변호인) 박성민 (02) 753-8037
정수범	(0431) 62-0984, 고원준 (0431) 66-6042 **** (변호인) 하죽봉 (02) 583-2336
박선영	(0431) 4-8513 **** (변호인) 정기호 (0431) 62-7133
백상진	(0445) 55-7944
송은아	(0431) 53-3440
정준태	(0342) 66-9372
유정원	(0431) 63-9920 **** (이상 4명 변호인) 이덕우, 정미화 (02) 533-9793
추병국	(0562) 47-6090 **** (변호인) 이영안
권영환	(0441) 44-3484 **** (변호인) 미정



- ① 청주대 자주대오는 88년 9월 당시 청주대 정외과 3년 송재봉 등 주체사상 추종핵심인물 20여명이 주축이되어 주체사상에 입각한 남한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지하조직으로
- ② 조직기관지 자주선언, 민주선언 등의 불온유인물을 제작 배포를 통해 반미 폭력시위를 주도 또는 배후조종해 왔으며
- ③ 특히 이들 조직원중 군입대자들은 동료사병에게 주체사상을 선전하거나 반미 선동내용의 불순가요를 전파하는 등 반미 이적활동을 해왔고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95년 통일실현을 맹신해 왔으며
- ④ 학-군 연계를 통해 92-93년 이른바 남한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대격돌 시기에 적극 참여 할 것을 다짐하고 주체사상학습 등 사상무장을 강화해 왔다는 것이다.
- ⑤ 조직체계도



- \*총학생회 : 총무부장 (장양훈), 기획부장 (이영근), 학술부장 (박근태), 사회부장 (이후삼, 전은수), 홍보부장(홍미선)
- \*졸업생 : 유정원(사회 86), 원종문(신방 86), 정준태(지리 86), 정순배(신방 86), 전호철(연영 86), 김태영(일문 86), 백상진(신방 85), 양서호(도서관 85)

\* 자주대오의 배후총책으로 기무사에 의해 발표된 송재봉 이병은 91년 4월 16일강원도 춘성으로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던중 91년 5월 22일 아무런 군법위반 혐의없이 재학시 활동을 문제삼아 연행, 구속하였다. 신병훈련을 받는 훈련병이 군대투쟁을 벌였다는것은 어불성설이며 부모면회를 차단시키고 밀실수사를 벌였다는 것은 자주대오라는 조직을 조작하려는 음모로 보여진다.

\*송이병은 5월22일 구속되어 약40여일동안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된 상황에서 (부모님 면회가 6월28일 에서야 이루어짐) 잠을 거의 자지못하고 강압적인 분위기하에서 있지도않은 강령을 진술서에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7월8일 담당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밝힘.

\*6월 13일 불구속 입건된 정순배씨는 수사체계가 기무사->지본->도경 대공과라고 증언.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일반인보다 훨씬 먼저 연행된 송이병과 권영환병장의 임의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속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일반인에 대한 수사방식은 송이병의 진술을 들이대고 잠안재우기 고문으로 자포자기 상태에서 인정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한다.

\*6월 14일 백상진씨의 면회결과 이미 시나리오는 다 짜여 있었고 경찰조사는 꿰어맞추기에 불과했으며 사건 관련자들이 '자주대오'라는 조직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폭로.(권영환 병장은 면회온 친구에게 도대체 '자주대오'가 무엇 이냐고 반문했다고 함)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 디스켓의 강령, 조직관리, 지침을 담아 학습해 왔다고 발표했으나 내용 분석결과 이는 91년도 총학생회의 합법적 학생조직 활동평가를 위한 토론제안서임이 밝혀졌다.

\*또한 경찰이 발표한 암호해독문의 실체는 최영환(신방 87 수배중)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일기장에 끼어있던 껌종이 3장으로 이것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에게 보내려고 자음, 모음, 알파벳 조합으로 쓴 편지였다.

\*이적표현물이라 발표된 「자주언론」이란 기관지는 청주대 운동사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민주선언」은 87, 88년에 제작된 것으로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반독재 민주화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검, 경의 발표처럼 이적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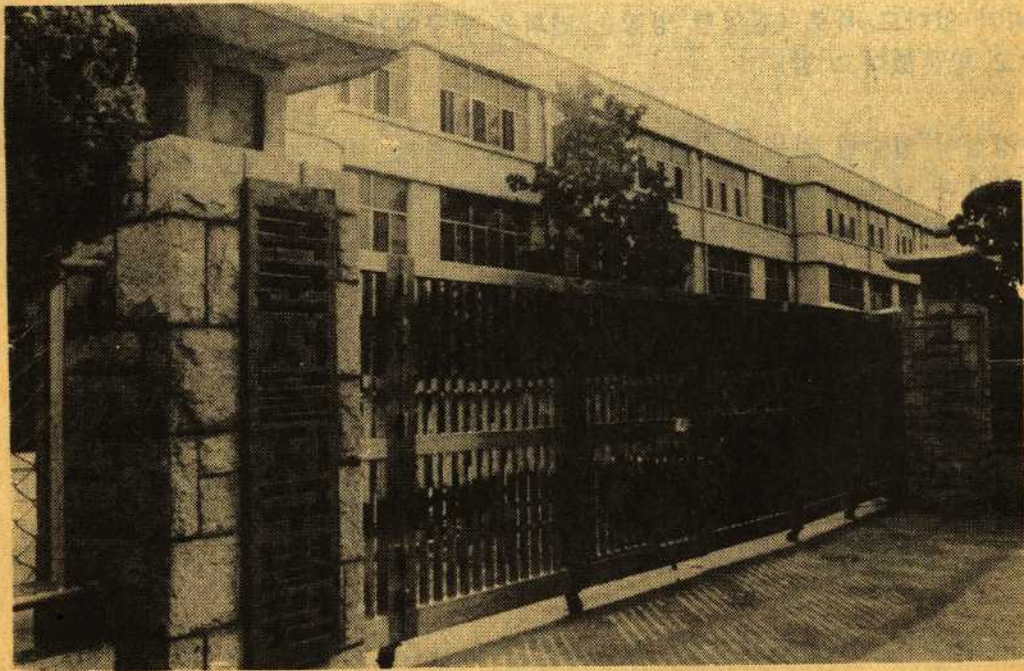
\*군 기무사는 학군연계투쟁이라 발표했는데 군복무자 중 3명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단기사병(추병국--군생활 2개월, 정수범--병무청 근무, 고원준--입대 후 후배들과 아무 연락도 되지 않음)이었고 현역 송재봉(훈련병), 권영환병장(전역 4



일을 남겨두고 구속)으로 보았을 때 군투쟁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경찰 발표는 이후삼(회계 87 1년 6개월째 수배)이 조직총책이라 했는데 어느단체, 어느집단이 수배자를 최고의 지위에 앉히려는가?

이상의 근거로 보았을 때 학생운동과 상당히 오래 유리되었던 군복무자와 심지어는 교도소에 소 출소한 지 20여 일도 안되는 사람과 졸업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데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주대오'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나며 강령이나 규약, 조직체계 등은 말할 나위 없이 조작되었음은 자명한 것이다. 우리는 5공화국에서 자행된 강제징집, 의문의 죽음, 녹화사업, 프락치 강요 등이 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더욱 고도화되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며 군 기무사령부는 군 내부의 기무만을 담당하고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성명서

-공안기관에 의한 청주대 이적단체 구성조직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1991년 6월 11일 새벽 야음을 틈타 청주대생 및 졸업생, 군복무자 12명에게 가해진 경찰과 국군기무사의 기습연행, 구금조사 사건이 조국의 민주화와 국민주권실현을 위해 일하는 민족민주운동을 음해하려는 공안기관의 천인공로할 공작적 탄압책동이라 규정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1. 청주대생에 대한 연행, 수사는 치밀하게 짜여진 사전각본에 의한 것으로 전면 날조임을 선언한다.

언론보도에 의하여 확인된 바, 검찰과 경찰이 소위 청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으로 명명하여 연행자들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시나리오는 절대적으로 허구임을 분명히 한다.

첫째, 연행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검, 경의 사건각본이 짜여져 있음은 이 사건이 날조극임을 반증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이다.

둘째, 청주대에는 '자주대오'라는 조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검, 경이 운운하는 생활규칙, 조직운영 체계 역시 거짓이고, 청주대 학생운동은 오로지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통일을 염원하며 국민의 편에 서서 소수 독재권력과 맞서 싸워 왔을 뿐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셋째, 검, 경이 말하는 「자주언론」이란 청주대 학생운동 사상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민주선언」은 87년~88년도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반독재 민주화의 염원을 담았을 뿐, 소위 이적성과는 하등 연관이 없는 평범한 대학 출판물임을 밝힌다.

넷째, 언론에서 파악하는 바로는 검, 경이 대오산하에 총학생회 등 제조조직체와 구성원들로 조직되어 있다고 하나 청주대 학생운동의 조직은 오직 학생들의 총의에 의해서 구성된 학생회 밖에는 없으며, 그 외에는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 존재할 뿐인 것이다.

다섯째, 검, 경의 시나리오가 조작임은 연행자 가운데서 학생운동에서 상당기간 유리되었던 군복무자와 심지어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한달도 안되는 졸업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데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2. 연행자체의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절차와 상관없이 연행과 구금을 불법이라 규정하며, 현재까지도 연행자들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족의 면회조차 금지되는 일련의 정황은 명백한 위법적 인권탄압이라 단정한다.

공안기관이 수없는 밀실, 고문수사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민주운동을 탄압해 온 과거의 행적에 미루어 볼 때 현재의 정황은 연행자들에 대한 반 인권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며, 이를 심각히 우려한다.